



## “더불어 하나되는 부처님 세상”

###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상조회 ‘미타회’ 출범



▷3월 11일 총지사에서 열린 서울경인교구 미타회 출범식.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상조회인 미타회가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3월 11일 서울 총지사에서 출범식 법회를 봉행하였다. 미타회는 자비와 나눔의 봉사와 상부상조를 통해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따왔으며, 서울경인교구 전 교도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

상·장례 등 애사가 발생했을 때 무료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도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봉사단체 성격을 지닌다. 서울경인교구장 정법계 전수는 출범식 법회 축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아픔과 번뇌, 상실과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자비 실천의 의미가 더욱 빛나게 된다”고 전제하며 “서울경인교구 상조회인 미타회야말로 부처님 자비실천의 열매로 아주 뜻깊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다. 정법계 전수는 이와함께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엔 출범한 미타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비 실천의 장이 되고, 회원들 모두 중생구제의 대도를 이루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원한다”며 “미타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미타회 이인성 회장은 “우리

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속세의 인연을 다하는 순간일 것”이라며 “슬픔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교도들의 고통을 전부 공유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미타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인성 회장은 이와함께 “미타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이며 미타회의 발전은 여러 스승님들과 서울경인교구를 비롯한 전 교도들의 참여와 봉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내외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강조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이연수 단장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미타회를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며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 “종보통신원 교류 활성화 시동”

종보편집팀, 교구 사원-통신원 순회 방문



종보편집팀이 전국 각 교구 사원과 통신원 임원진 순회 방문을 시작하며 종보통신원 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종단 교회발전과 화합을 위한 정진호가 되고 있다.

종보편집팀은 올해 초 충청전라교구 대전 만보사를 시작으로 각 교구 신정회 지회장과 통신원들을 만나 종단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달 13일엔 1박 2일 일정

으로 대구경북교구 영천 단음사와 흥해 선암사, 포항 수인사를 순례하며 주교 스승과 지회장, 통신원들과 연석 회의를 가졌다.

종보통신원 회장 이인성 각자는 이번 순회 방문에 대해 “종보 취재와 함께 전국의 사원 스승님들과 교도들을 현장에서 만나 종단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교류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사월 초파일엔 썬 연등 만들기가 한창이다. 불공도 올리고 연꽃등 만들어 웃음꽃도 피운다. -총지사에서

## 상반기 49일 불공 8일 회향 “나라 안녕, 부국강병” 기원

불교총지종은 오는 8일 전국 사원에서 총기 37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불사를 봉행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한 진호국가불공은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2번 실시된다. 종조법설집에는 “상반기 49일 불공 정진의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으며 부국강병으로 의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 못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상하고 서원해야 한다.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라고 설명해 있다.

### 자비신행회 12일 견기대회

위드드라마, 자비신행회가 오는 12(토)일 과산 수련원에서 성지순례 및 건강견기대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전 8시 30분 총지사, 밀인사에서 각각 출발한다. 과산수련원 입구 이평리에 집결하여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에 걸쳐 진행된다. 이동차량 배정을 위해 당 사원 주요에게 9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점심과 간식 등은 개인자참, 참가비는 1만원이다.

## 총지종, 제71회 춘계 강공회 16일부터 개최 종단 발전방안 토론회

불교총지종(총리원장 원송)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제71회 춘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춘계강공회에서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결산을 심의 결의하고, 종단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는 종단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과 관련해 각 교구별 2명의 발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종단 현황과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종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종단 발전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 종조법설

#### 생(生)의 가치관(價値觀)

신심(信心)은 환희(歡喜)한 데서 생기므로 소외보다는 참여로 좌절보다는 의욕으로 명령주의 보다는 대화로 권위주의보다는 이해로 자리보다 이타로 미움보다 환희심으로 살자. 이것이 생의 가치기준이며 참으로 즐거움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종조법설집 잠언편

8면 100호 기념 특집 기고 2

10면 대구 경북 사원탐방

12면 진언행자를 찾아 / 포항 수인사

## 제71회 춘계강공회

금강같은 정진, 교화 혁신과 종단 발전...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총기 37년 4월 16일(수)~4월 18일(금)
- 장소: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원 송



# 사 설

## 양로시설 건립의 이원화 방안

매년마다 종단에서는 중생제도와 종단발전을 위한 교화방편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좀더 과감하고 속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종단에서는 여러 가지 불사를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다. 그 가운데 누차 강조되었던 것이 '양로시설의 건립'이다.

종단의 교구의 지하나 신정회에서 늘 거론되었던 단골메뉴 중에 하나가 양로시설의 건립이다. 건립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당위성은 문제된 적이 없다. 종단내에서 반대할 교역자나 교도들도 더더욱 없다. 오히려 그 필요성을 역설해온지 오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로시설 건립을 위한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종단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도들은 양로시설 건립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보의 부족이다. 그동안 양로시설건립이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지매입의 어려움에 있다. 적합한 부지가 없다는 얘기다. 양로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그간 역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까지도 신규 부지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그 대안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기존 사원의 인접부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요양원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대안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교도들의 마음이 조급하다. 고행화되어가고 있는 교도들의 입장에서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로시설의 건립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방법을 달리 하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째는 기존과 같이 신규부지를 매입하거나 인접부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고 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양로시설을 들 수 있고, 둘째는 기존의 사원 가운데 일부 사원을 선정하여 소규모의 무료양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자는 것이다. 전자가 중장기 계획이라면, 후자는 단기성의 안이라 할 수 있겠다. 후자의 경우는 당장 금년에 착수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적임지 사원을 선정하고 특화된 양로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로시설의 성격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기도원, 단기보호시설 등으로 나누어 시설마련을 검토할 수 있겠다. 그다음, 양로시설의 건물구조 및 규모,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자실의 운영체계, 인력수급,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 부지매입이 당장 성사되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종단소유의 부지를 활용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도 발생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어려움과 문제는 해결해나 가면서 반드시 일을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고 하여 시도마저 주저한다면 더 이상 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회색에 불과한 것이다.

양로시설 건립에 대한 실천의지와 밀그림 마련을 위한 노력만 있다면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수는 없다. 어려움과 난관은 헤쳐 나가라고 있는 것이다. 해답은 항상 문제 속에 있고 불가능이란 없다. 문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응시자 자신의 신념과 실천에 달려 있는 것과 같다. 완벽한 무대란 없다. 처음부터 충분한 조건으로 시작되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나라와 불교 발전위해 상호 협조”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 예비역 군 장성 방문



원승 통리원장이 예비역 군장성들과 환담하고 있다.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 예비역 군 장성들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3월 21일 서울 통리원을 방문하고 상호 발전 방안과 관련해 환담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선에서 헌신했던 예비역 장성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종단이 연합회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성심껏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은 “본 연합회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인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단결하지는 취지로 결성됐다”며 “정통 밀교종단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총지종의 지지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엔 총지종 재무부장 시정 정사와 사무국장 법일 정사,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이진호 방생협회 회장,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감사 신윤희 예비역 육군 소장 현병갑, 상임감사 정암사 법일 스님, 교문 한승조 전 고려대 교수 등이 배석했다.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30일 예비역 군 장성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법회를 가졌으며,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 남산 한옥마을 옆 총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 진언수행의 길

주력문은 진언총지문(眞言總持門)이라고 합니다. 진언총지의 '眞言'은 '참된 말', '진리의 언어' 등으로 풀이되고, '總持'는 범어 다라니(Dharani)를 의역(意譯)한 말로서, '모든 장애를 벗어나게 하고 항량없는 복덕과 공적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곧 진언과 다라니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어로 된 짧은 구절은 진언(眞言) 또는 주(呪)라 하고, 긴 구절로 된 것을 다라니 또는 대주(大呪)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 풀이를 통하여 보면 '주력문·진언총지문'이 밀교(密敎)계통의 수행체계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언총지의 주력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밀교에 대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주력 수행법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밀교는 부처님께서 깨우친 진리를 은밀하게 보여주는 대승불교의 한 교파입니다. 밀교

는 당시까지 발전되어 왔던 반야공사상(般若空思想)과 유식사상(唯識思想)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시에, 힌두교와 민간신앙을 폭넓게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다시 불교적으로 정립한 것이 밀교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밀교는 육신을 지닌 체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즉신성불(即身成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즉신성불을 이룰 수 있는가?

### 진언총지 주력문(呪力門)

몸으로는 단정히 앉아 여러 가지 수인(手印)을 맺고, 마음으로는 진언을 염송하고, 마음으로 대일 여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밀(身密) '구밀(口密)'의밀(意密)의 '삼밀가지(三密加持)'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곧 '나'의 몸과 말과 뜻, 부처님의 몸과 말과 뜻, 이 둘이 서로 은밀하게 감응하여 일치를 이루면 현상에서 능히 성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입으로 진언을 외움과 동시에 앞에서 말한 삼밀가지

중 의밀(意密)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그 진언의 제목에 해당하는 모습을 마음으로 떠올리는 관상법(觀想法)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뜻을 새기듯이, 진언이나 다라니를 외울 때 그 장면을 관상하게 되면 주문의 힘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옛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불가에서는 진언이나 다라니의 뜻을 굳이 풀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풀이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언 그 자체의 신비로운 힘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범음(梵音)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어진 것이 관상법입니다. 음미(音미)해 흠·광명진언·아미타불 본심 미묘육자대명왕진언·대비주·능엄주 등 그 어떠한 주력을 행할지라도 꼭 관상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아가 천수경 등과 같이 경문과 주문이 함께 있는 경전을 외울 때 관상을 하고 경 구절을 외울 때 뜻을 새기며 읽게 되면 그 효과는 가히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 총지학대령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등장한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매우 폭력적이고, 비열한 인간을 의미한다. 19세에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Phillippe Pinel)이 사이코패스(Psychopath) 증상에 대해 최초로 저술했는데, 사이코패시(Psychopathy)는 독일의 심리학자 슈나이더에 의해 처음 소개됐다.

미국에서 회대의 연쇄살인범 'BT'가 검거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1974년부터 최소한 10명을 살해한 용의자를 31년 만에 잡고 보니 경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23년에 걸쳐 215명

은 흉악범죄로 추정했다. 범인이 어려운 한자를 잔뜩 섞은 '도전장'이란 것을 지방신문사에 발송하는 등 교활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로 한 달여 만에 잡힌 범인은 피해자와 한 동네에 사는 14세의 중학교 3년생이었다. 소년은 학교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공포물 비디오나 엽기적인 범죄를 다룬 서적, 만화를 유달리 좋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감정 결과 "비정상적인 쾌락을 얻으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 인구 중 약 4%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약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아직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 사이코패스

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2001년 불합친 죽음의 의사 해럴드 시프먼도 존경 받는 의사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건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2004년 7월 16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었다. 확인된 숫자만 20명, 숫자만큼이나 충격적인 범행 수법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검찰은 연쇄살인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심리학자들과 함께 유영철의 정신 상태를 감청했다. 검사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에 일본 교베시에서 누군가가 11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절단한 시체 일부에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는 문구를 붙여 중학교 정문 앞에 갖다놓았던 것이다. 경찰이나 매스컴은 처음에는 성인이 저지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밝혀주지 못했다. 훌륭한 부모를 가진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출현하며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계속해도 대부분 효과가 전혀 없다. 확실한 것은 그들의 유전자 구조에는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인자가 부족하다는 점과 열악한 가정, 사회 환경이 그것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치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 그들의 양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일 정사/ 통리원 사무국장  
(※ 총지캠페인→ 총지학대령으로 코너명을 변경합니다.)

- 알림방** ▶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4월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 ▶ 8일은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입니다.
  - ▶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제71회 춘계강공회를 개최합니다.
  - ▶ 한국 미술협회 회원인 전월선님(운천사 교도)의 개인전이 8일까지 경남 창원 대안공간마루에서 열립니다.
  - ▶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초파일에 공양할 연등작업이 진행되오니 동참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 까지

개천사 무명씨 3.13 5,000	단음사 유가혜 3.28 10,000	법천사 원만원 3.25 10,000	수인사 김봉기 3.27 10,000	정심사 오운보 3.20 5,000
개천사 광동규 3.21 30,000	단향사 김경남 3.18 10,000	법천사 박말조 3.25 5,000	수인사 한애숙 3.28 30,000	정심사 박옥란 3.24 20,000
개천사 박상순 3.26 10,000	단향사 행원심 3.27 10,000	벽통사 원 당 3.10 10,000	수인사 공경원 3.27 10,000	지인사 허성동 3.12 20,000
개천사 박연자 3.26 10,000	단향사 이은별 3.27 10,000	벽통사 묘심해 3.10 10,000	실보사 조순애 3.10 10,000	총지사 김은숙 3.6 50,000
개천사 경 원 3.28 10,000	만보사 민순분 3.10 10,000	벽통사 구세회 3.12 10,000	실보사 이순옥 3.13 5,000	총지사 선도원 3.31 10,000
개천사 정병수 3.28 10,000	만보사 지 성 3.28 10,000	벽통사 구동연 3.12 5,000	실지사 정우석 3.12 10,000	총지사 장근도 3.31 10,000
관성사 김철우 3.4 10,000	만보사 승호계 3.28 10,000	벽통사 이희숙 3.13 10,000	실지사 박병성 3.13 30,000	총지사 이인성 3.24 30,000
관성사 현정원 3.13 30,000	밀인사 임동수 3.18 10,000	삼밀사 인법계 3.7 10,000	실지사 이화수 3.19 10,000	통리원 지 정 3.25 20,000
관성사 해 정 3.27 10,000	밀인사 신대식 3.19 5,000	삼밀사 원 송 3.7 10,000	실지사 정경자 3.25 5,000	혜정사 최영례 3.14 10,000
관성사 정법계 3.27 10,000	밀인사 이혜성 3.19 5,000	삼밀사 백진국 3.13 10,000	실지사 손정우 3.31 10,000	혜정사 정은선 3.25 20,000
관성사 이혜원 3.31 5,000	밀인사 신동희 3.19 5,000	삼밀사 백진웅 3.13 10,000	실지사 손현경 3.31 10,000	혜정사 지성인 3.25 20,000
관음사 신막삼 3.11 10,000	밀인사 신동의 3.19 5,000	삼밀사 백진욱 3.13 10,000	운천사 박보경 3.17 10,000	회음사 류재환 3.4 10,000
기로원 상지화 3.25 10,000	밀인사 이연수 3.26 10,000	삼밀사 일각정 3.13 10,000	정각사 박수빈 3.5 10,000	회음사 강순란 3.5 5,000
기로원 불멸심 3.25 10,000	밀인사 재비행 3.28 100,000	삼밀사 인법계 3.27 10,000	정각사 구정희 3.13 20,000	회음사 강승훈 3.28 10,000
기로원 법장화 3.25 10,000	밀인사 무명씨 3.28 10,000	삼밀사 원 송 3.27 10,000	정각사 노점호 3.13 10,000	흥국사 밀공정 3.6 10,000
기로원 대자행 3.25 10,000	밀인사 정정희 3.31 5,000	선립사 정복지 3.14 10,000	정각사 김문수 3.17 10,000	흥국사 여순애 3.6 10,000
기로원 대 관 3.25 10,000	밀행사 석우성 3.31 20,000	선립사 심지장 3.14 10,000	정각사 변순개 3.20 5,000	
기로원 수중원 3.25 10,000	백월사 박인철 3.20 5,000	선립사 대 덕 3.24 10,000	정각사 박영숙 3.20 10,000	
기로원 자선화 3.25 10,000	백월사 박인국 3.20 5,000	선립사 김자희 3.27 10,000	정각사 박수빈 3.24 10,000	
단음사 법연지 3.5 5,000	백월사 박삼순 3.31 10,000	선립사 황귀석 3.28 10,000	정각사 윤선자 3.28 10,000	
단음사 이규성 3.13 3,000	법천사 일수정 3.19 20,000	성화사 우담바라 3.17 50,000	정각사 자비회 3.28 30,000	
단음사 안 성 3.28 10,000	법천사 지 정 3.25 10,000	수인사 공경원 3.5 10,000	정심사 오운보 3.4 5,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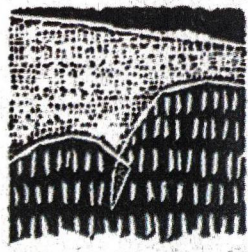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돌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주인공



주인공아!  
네 밥 먹었느냐?  
네 배가 부르느냐?  
네 차 한잔 들거라!  
네 꽃 지는 것을 서러워  
말아라.  
영근 열매다.  
- 정현 스님(선화가)

지구 앞으로만 나가다가 결국은 발이랑이 끝나  
빈 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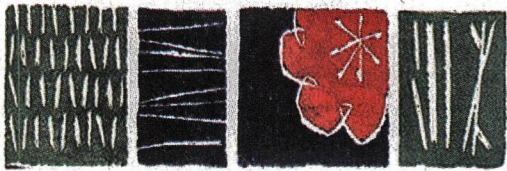
멀고 긴 인생의 행로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많  
으나  
참으로 내 것인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  
다.

- 장용철 / 시인

세상의 모든 풀들이 약초이듯이



처음 그것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기바'가 의사 수업을 받  
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기바에게 망태를 던져 주면서  
말했습니다.  
"약초를 캐 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그는 며칠이 지나서야 그것도 빈 망태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약초는 캐오지 않고 어디를 갔다 왔느냐?"  
"스승님,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은 천지가 약초뿐인데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바의 말을 듣고 스승은 그를 의사로 인정하였  
습니다.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  
다.

- 문운정 / 수필가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혼기를 앞둔 딸을 교육할  
때  
바구니를 들려 옥수수 밭으로 들어 보낸다고 합  
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따오면, 아주 마음  
에 드는 훌륭한 신랑감을 골라 줄 것'  
이라고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들은 대개 빈 바구니를 들고 밭을 걸  
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으나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겠지' 하고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고

~전수경면 제 26화~

글.그림/정수일

애야, 달에는  
옥토끼가 살고있고  
떡방아를 찿는단다.

하하하!  
재밌어요.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어느덧 손자는  
대학생 소동구리가  
되었습니다.

아웃~! 할아버지  
그건 잘못된 상식이어요.

애야,  
달에는  
옥토끼가...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옥토끼가 살지 못해요!

고으응...  
이녀석이  
다 컸다고  
이젠...

지식이란 것처럼  
책이나 어떤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알음알이죠.

에라이~!  
그렇게 말하면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달에 소동구리가  
방아를 찿던 토끼가  
방아를 찿던 그게  
어쨌든 말이냐?!

지혜란 지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마음의 저변에서  
한없이 샘솟는  
것이다.

어딜 가!  
우리들 가슴 한 칸에  
가족의 정을 이어주는  
옥토끼 한마리 찿  
남겨두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  
것이겠냐.

안다는 것 하나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다! 알겠냐? 모름  
말고...

그만  
집에  
갈래요.

자...그다음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

즉 모든 중생들의  
고난과 불행은  
없애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얼마나 원대한 서원들이니까.

아근~  
비교하다.

난데없이 웬  
훈장님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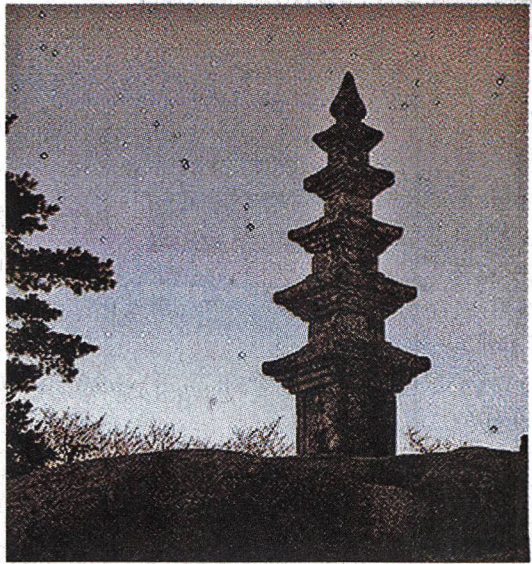
願 我 速度 一切 衆  
원컨대 내가  
일체중생을  
빨리 제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정수일홈피--> http://drawing-rahula.ohpy.com

이달의 명상

성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조복하기 어렵다

하루 동안 마음을 거두어 산란치 않으려  
해도 조복하기가 어렵다. 또 집에 있는 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산에 있는 사슴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 달아난다. 성내는 마음을  
버리기 어렵기는 집 지키는 개와 같고, 사랑  
하는 마음을 잃기는 산에 있는 사슴 같으  
므로 조복하기 어렵다.  
또 성내는 마음은 돌에 새긴 글씨처럼 지  
우기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은 물위에 쓴 글  
씨처럼 빨리 사라진다. 성내는 마음은 달아오  
른 불덩이 같고, 사랑하는 마음은 번갯불과  
같다. 그러므로 조복하기 어렵다. ....  
-**열반경 범행품**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증후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경희대,전북대,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0,000 복분자주 ₩25,000 \* 2명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세계속의 불교 ⑨

미얀마(myanmar)의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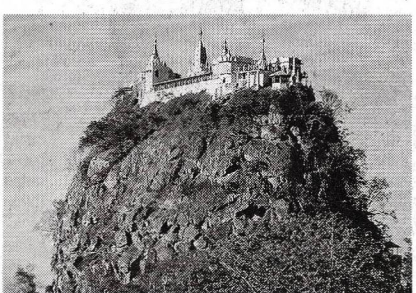
▷인레호수의 인명 유적

부처님 사후 불교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기원전 3세기 인도 마우리아 왕국의 아쇼카 왕이었다. 그는 잔인한 정복전쟁의 영웅이었으나 살육의 참혹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한다. 이어 불교를 국교로 삼아 통치이념화 하면서 여러 나라에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한다. 아쇼카 왕은 아홉 차례나 포교사를 파견했다.

여덟 번째로 파견한 소나 스님은 옷따라 스님과 함께 '황금의 땅(수와르나부미)'으로 일컬어지던 현재의 미얀마에 도착했다. 미얀마에서 불교가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미얀마에서는 궁에서 사내아가 태어나기만 하면 바다에 있는 공포의 여신이 죽어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두 스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공포의 여신의 친구라고 여겨 무장을 하고 달려들었다. 두 스님은 "우리는 여신의 친구가 아니고 불법을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라고 했다. 그때 공포의 여신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러자 스님은 이들의 두 배나 되는 수의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여신은 '이 나라는 필시 이 사람들의 소유아구냐'하고 생각하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두 스님은 그 자리에 성을 만들고 <범망경(梵網經)>을 설했다. 이로써 6만 명이 불법을 믿기 시작했고 수천 명이 출가를 했다고 한다. 믿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부다 자신이 생전에 미얀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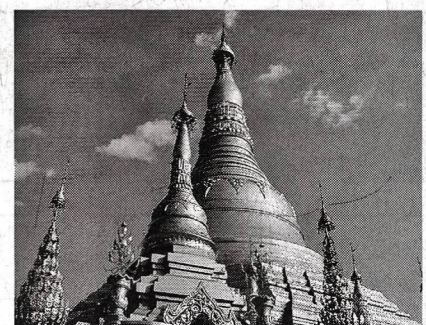


▷포파산 위의 사원

곳저곳을 돌며 설법했다고도 한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하나의 종교라기 보다 생활 그 자체이다. 미얀마의 불교는 소승불교의 한 종파인 상좌불교이다. '소승(小乘)'이란 '혼자 타고 가는 작은 수레'란 뜻으로 개인의 구원만을 목적으로 함을 비유하여 나타낸 말이다. 이는 대중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승 불교에서 그들을 비하하여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소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남방 불교 혹은 상좌부 불교로 불려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등으로 전파되었는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전파된 대승불교에 비해 계율이 엄격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경전의 원본에 충실한 불교이다.

미얀마의 불교발전



▷양곤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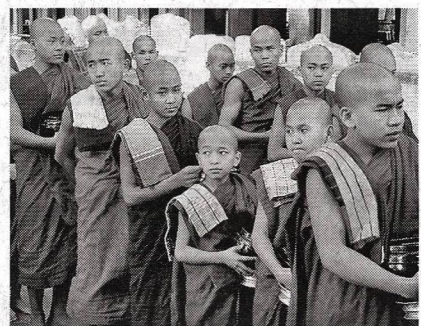
상좌불교가 융성하게 된 시기는 11세기 초 바간왕조의 아나우라타(Anawrahta) 왕 때이다. 아나우라타 왕은 미얀마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시키고 몬족이 세운 국가인 타톤을 공격했는데, 그 이유는 타톤의 왕이었던 마누하에게 팔리어 경전을 보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아나우라타 왕은 1057년에 타톤을 멸망시키고 팔리어 경전과 주석서들을 가져왔고 이때부터 대승불교의 범어 경전 대신 팔리어 경전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미얀마에 본격적으로 상좌불교를 전파했다.

경전을 기록한 팔리어는 미얀마의 언어로 정착되었고 팔리어 경전인 담마(dhamma)가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전에는 왕의 통치권이 왕실 주력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불교를 나라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통치권도 확대되었다. 그 이후 불교는 미얀마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오늘날 전 인구의

89%가 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인, 명실상부한 불교 국가가 되었다.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2,700여 개의 탑들, 100미터가 넘는 거대한 황금 대탑, 물위의 호수에 세워진 수많은 사원, 고려의 팔만대장경에 버금가는 석장경, 탑으로 오르는 기나긴 회랑들, 아침마다 탁발에 나서는 스님들의 장엄한 모습을 보면 미얀마가 불국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는 국토 전체가 거대한 탑(塔)의 발이다. 번잡한 도시에서 한적한 시골, 험한 산 속, 깊은 동굴까지 탑은 어느 곳에나 있다. 심지어 물로 가득 찬 호수 위에서도 거대한 탑들은 예외 없이 나타난다. 미얀마 시민들의 삶은 소박하지만 살아 있는 경전이다.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 기념일마다 병원과 양로원, 보육원을 돌며 보시를 하고 새벽마다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미얀마 스님의 승원생활



▷만달레이의 스님들

미얀마 풍습에 따르면 남자 아이들은 9~13세에 신티(Shinpyu)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신티는 며칠 또는 몇 주간 사원에서 수련을 쌓으며 승려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이는 왕자처럼 비단옷을 입고 포좌(砲座)에 실려 사원으로 간다.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카락은 흰보자기에 싸서 인근 파고다 아래에 묻는다. 고승이 건네는 바리를 받는 것으로 의식은 끝이 나고 아이는 승려 생활에 들어간다. 여자 아이들은 이 시기에 귀를 뚫는 '나트윈(Nathwin)'을 치르고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게 된다.

신티 의식을 치른 이후에도 미얀마인들은 머리를 깎고 승려생활을 반복함으로써 불자로서의 자세와 예절을 익힌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승려가 되어 살기도 한다. 이 의식을 거치고 승원 생활을 한

후에야 비로소 독립된 젊은이로 인정되어 결혼의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하는 것에서 신티 의식이 원래 성년식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미얀마 불교도의 대다수가 승려가 되어 승원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하는데 이는 신티라는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다. 이 행사의 정점에 가서 두발 같은 온갖 장식품이 벗겨지고 가사가 입혀진다.

보다는 한 것처럼 모든 세속적 욕망과 쾌락적 삶을 포기하고 열반의 경지를 구득(求得)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가 기증한 8가지 승원생활의 필수품 - 하의 가사(thinbain)·상의 가사(eikathi)·망토 가사(dugou)·탁발 그릇(dhabei)·면도칼(thindounda)·바느질 도구(a)·허리끈(gabangjou)·물여과기(jeisi) - 을 받아 승원에 들어간다. 승원에서 수련승으로서 10계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 모든 식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승원에 머무는 동안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승려로서 탁발 구걸의 생활을 해야한다.

좌선(Sitting Meditation)·경행(Walking Meditation)·일상생활 관찰하기(Daily Life Meditation)가 주된 명상법으로, 그 중에서 일상생활 관찰하기는 유용한 수행 방법이다..

미얀마 스님의 하루일과

하루 일과는 아침 3시 30분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4시부터 6시에 사이에 경행 및 좌선, 6시부터 7시 사이에 아침 공양을 하는데, 간단한 죽 종류가 마련된다.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경행 및 좌선 수행을 각자 법당에서 행한다.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 점심 공양을 한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상이 구분되어 마련되는데, 아주 풍성한 상차림이다.

이후는 오후불식(午後不食)으로 간단한 음료 이외에 일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12시부터 5시까지 경행 및 좌선을 하고,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법문 및 염구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경행 및 좌선을 하고, 10시 이후에는 자를 정진을 하게 된다.

(http://www.budreview.com/html/3/3-gobal-kang.htm)

-지정 정사

총지동의보감

자궁이 건강해야 피부도 아름답다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요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각계각층에 여성들의 분포가 많아지면서 남녀구분없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스트레스를 겪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물론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에게도 못지않은 육아와 생활의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있다. 사회활동은 하는 여성들의 경우 경쟁사회에 뛰어들지 않기 위해 자기개발과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자를 막론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이 단순히 외모에만 치중된다는 점이며 뒤따르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고라도 무리한 성형과 다이어트로 건강을 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건강의 중요한 지표

이러한 부분이 좋지 않다는 반감보다는 외부적인 아름다움과 건강에서 우러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죽비소리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은 실망을 많이 일으키고

정의(正義)를 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세간과 출세간의 위의를 또한 잃어버린다.

-보살행변화경(菩薩行變化經)

'여성美' 조선화 원장

이런 여성병(婦인병)은 2생이사나와 여성이 만리천은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러명의 건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경단(子經丹)

종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복심 자궁서열체거

생혈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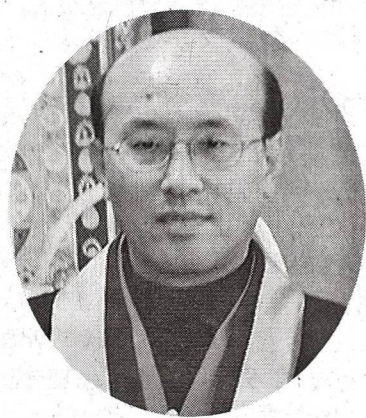
조음피

온열전기침

저주파저리기

지상설법

'부처님 가르침의 생활화' 자기 다짐



원당 정사

백통사 주교

월초불공의 근거

종조님께서는 종조법설집에서 '한 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 불공함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월초불공은 매월 첫 번째 주의 일주일동안에 행하는 총지종의 독특한 불공기간이며 특별한 수행정진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잡다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오로지 진언염송(眞言念誦)에만 전념하여 마음을 맑히고 밝히는 기간이며 이전에 지은 나의 허물을 찾아서 업장을 참회하고 원력을 세우는 수행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는 다른 불공기간 못지않게 월초불공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조님께서 이러한 월초불공을 정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월초불공을 실천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재경(佛說齋經)에 의하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바티 동쪽으로 가시다가 유아라고 하는 신도의 집에 머물면서 큰 복이 되고 좋은 공덕이 될 여덟 가지 재계(齋戒)의 법을 설하시며 재가자는 하룻 낮 하룻 밤 동안만이라도 번뇌가 없는 아라한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가지 재계(齋戒)의 법이란

- 1: 살생하지 마라.(不殺生)
2: 훔치지 마라.(不偷盜)
3: 음행하지 마라.(不淫欲)
4: 거짓말 하지 마라.(不妄語)
5: 술먹지 마라.(不飲酒)
6: 화장하지 말고 기무를 보거나 듣지 마라.(不裝扮打扮及觀聽歌舞)
7: 높고 넓은 화려한 침상에 눕거나 앉지 마라.(不眠坐高廣華麗之床)
8: 때 아닌 적에 먹지 마라.(不食非時食)
입니다.

이를 팔관재계(八關齋戒)라고 합니다. 거듭 말씀하시기를

"이 여덟가지 계법은 온갖 나쁜 짓을 막는 문이며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하는 길이다. 출가 수행승이 되어 도를 닦는 이들은 평생을 지키지만, 세속에 있는 신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하룻 낮 하룻 밤 동안만을 지키는 것이다.

삼장재월(三長齋月)인 일월, 오월, 구월 달에나 육재일(六齋日)인 여드레, 열나흘, 보름, 스무 사흘, 스무 아흐레, 그믐날만이라도 깨끗하게 받아 지키면 그 복덕은 열여섯 나라이의 보물을 모두 한 곳에 쌓아두고 혼자서 수용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모든 하늘의 선신들이 항상 보호할 것이므로 온갖 재앙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지혜의 길을 장엄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팔관재계는 오계(五戒)에서 '사음하지 말라'가 '음행하지 말라'고 바뀌고 여기에 세 가지 계율이 더해진 것입니다. 곧 모든 악업을 끊고 선업을 닦는 것으로 재가불자로서 오계는 평생을 지켜야 하지만 팔관재계는 육재일의 하룻 낮 하룻 밤 동안만이라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육재일(六齋日)에서 재(齋)는 '삼가다'또

일(日)만이라도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불설재경에서 재가신도들은 육재일을 지키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서 월초불공의 근원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월초불공은 육재일인 여드레, 열나흘, 보름, 스무 사흘, 스무 아흐레, 그믐날을 매월 첫주의 육일동안으로 옮겨서 이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초불공 기간은 불자들이 육재일을 지키듯이 재계(齋戒)하며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월초불공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믿고

입니. 재계하며 염승과 회사를 통한 선업(善業)을 닦아야만 복과 지혜가 증장되며 일체 재앙이 소멸되고 무량한 공덕이 완만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만이라도 재계를 받아서 지켜도 한량없는 공덕을 이룬다고 하였듯이, 월초불공이 비록 일주일 동안의 짧은 수행이지만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비록 극히 작지만 큰 그릇을 점점 채우고 적은 선업이라도 점점 더하면 적은 것이 넓고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을 재계하지는 못하더라도 월초불공기간 동안만이라도 재계하며 수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모여서 일년이면 석달이 되고 따라서 석달을 출가수행자의 삶을 산 셈이 되고 한번의 안거(安居)를 치른 셈이 됩니다. 이것이 재가와 출가가 틀어 아닌 삶을 사는 것이며 부처님에게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심는 것이고 성불(成佛)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초불공동안 재계하고 보시를 행하며 육행실천(六行實踐)을 하여 쌓은 선근공덕을 자성일(自性日)에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비밀주여! 어리석은 범부들은 숫양과 같으나 언젠가는 하나의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이른바 재를 지킴(持齋)이 그것이니 그가 그것의 적은 부분을 사유하고 기쁜 마음을 내어 자주자주 닦아 익힌다면 비밀주여, 이것이 최초로 선업의 종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육재일(六齋日)에 부모, 남녀, 친척에게 시여(施與)한다. 이것이 제이(第二)로 종자가 싹트는 것(芽種)이다."

-대일경-

월초 불공의 의미

는 '부정(不淨)을 피한다'는 의미를 가진 우포사다(Uposadha)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身), 구(口), 의(意) 삼업을 살피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뜻하며, 재계(齋戒)는 식사와 행동하는 것을 삼가고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월 육일동안을 이러한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육재일이라 합니다.

육재일은 매월 정해진 날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팔관재계를 지키며 청정한 생활을 하며 정진하는 날입니다. 하룻 낮 하룻 밤 동안 만이라도 계를 받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한다는 의미이며 욕망을 극복하고 방탕한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 게으른 생활을 떠나서 만족하고 검소하고 청정한 생활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재가자들은 재

단순히 복덕만을 비는 기간이 아니라 팔관재계를 지키고 몸과 말과 뜻의 삼업(三業)을 깨끗하게 지켜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맑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월초불공기간에는 정한 염송(念誦)과 회사(喜捨)를 빠뜨리지 않고 행하는 것 못지않게 재계하는 일도 더욱 중요합니다. 재계하는 일은 모든 선행(善行)의 기초이며, 만가지 선법(善法)을 자라게 하는 터전이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며, 온갖 공덕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재계하지 않고 공덕을 바라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를 써서 밥을 지을 수 없듯이 재계하지 않고 공덕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망을 키워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고 마장을 불러들이는 일

평안한 사람

"어떻게 보고 어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고타마남,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성인은 화내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고 주문을 외거나 허둥거리지 않으며 말을 삼간다.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추억하며 울적해 하지도 않는다. 감관에 닿는 모든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견해에 이끄는 일이 없다.

탐욕에 멀리 떠나 거짓 없고 욕심내지 않으며, 인색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미움 받지 않으며 두말(兩舌)을 하지 않는다. 유쾌한 일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며 잘못 믿는 일도 없고 버릴 욕심도 없다. 이익을 바라고 배우지 않는다. 이익이 없을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애착 때문에 남을 거역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

식을 탐내지 않으며, 항상 평온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자기 처지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뛰어난가거나 못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번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걸림없는 사람은,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애착도 생존을 끊어 없애려는 욕망도 없다. 모든 욕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평안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에게는 열매의 매듭이 없고 이미 모든 집착을 뛰어넘었다. 그에게는 지식도 가축도 논밭도 주택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얻지 못한 것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

범부와 사문 또는 바라문들이 그를 비난하여 탐욕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욕심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 성인은 탐욕을 떠나 인색하지 않으며, 자기가 잘났다고 못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을 두지 않으므로 망상

분별에 따르지도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또 없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어떤 사물에도 이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경집)

진리의 여울

흔들리는 평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성인은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에 동하지 않는다. 성인은 무슨 일이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불붙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행한다. 그는 또한 아는 대로 떠들어떨 것이다.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기의 계율과 도덕을 선전하는 사

람, 스스로 자기 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룩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편안히 마음이 안정된 수행자기 계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 하면서 뽐내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번뇌를 불타지 않는다면 그는 거룩한 진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때문에 소견을 미리 만들고 고치며 치우쳐 자기 안에서만 훌륭한 열매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는 평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을 확실히 알고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좁은 소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 그것을 집착하고 진리를 등진다. 사악을 슬어 없애버린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모든 생존에 대해 편견이 없다. 사악을 물리친 사람은 허위와 교만을 버렸는데 어찌 운회에 떨어질 것인가. 그에게는 이미 의지하고 가까이 할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고 의지함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편견을 쓸어버린 것이다.

(경집)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시간

-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 살기쉬운 밀교상식<12>

## 삼밀(三密)과 삼밀수행(三密修行)

### 밀교수행의 기본인 삼밀행

#### 중생의 삼업과 부처의 삼밀이 상응하는 밀교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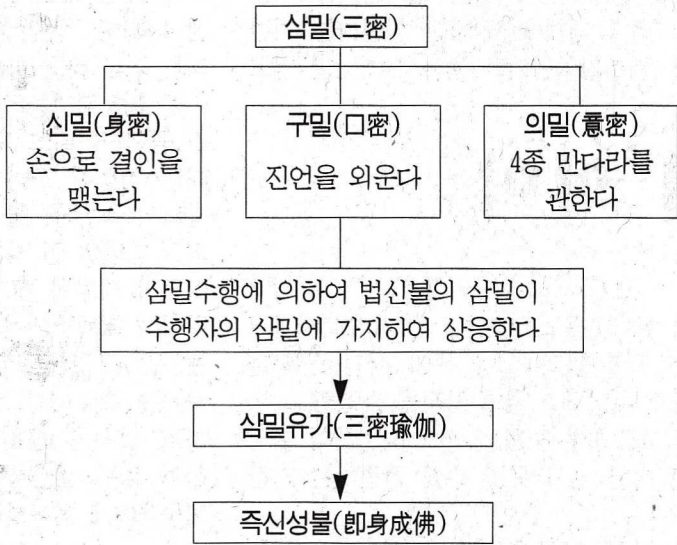
밀교에서는 중생의 모든 행위와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처의 그것과 같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을 삼밀(三密)이라고 한다. 삼밀은 비밀의 삼업이라는 의미이다. 삼업은 신·구·의 즉, 몸과 입과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용이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신·구·의의 삼업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몸으로 행위를 하고 말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으로서 끊임없이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삼밀이라고 하면 범부 중생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불(佛)의 삼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신밀, 구밀, 의밀이다. 여기에서의 불이라는 것은 범신불인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이다. 밀교에서는 불의 삼업은 불의 체(體)·상(相)·용(用)의 삼대 가운데서 용대(用大)를 말한다. 용대라는 것은 진여(眞如)의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범부 중생들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삼밀이라고 한다. 중생의 삼업은 불의 삼밀의 작용으로 닦아 지지만 그 감추어진 본성은 불의 삼밀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이것을 중생삼밀이라고 한다. 중생의 삼업이 불의 삼밀과 상응하면 삼밀용대라고 하는 의미가 완성된다.

삼밀에는 무상삼밀(無相三密)과 유상삼밀(有相三密)

의 두 가지가 있다.

유상삼밀은 몸으로서 수인(手印)을 맺는(이것을 결인(結印), 혹은 인계(印契)라고도 한다) 신밀과 입으로 진언을 외우는 구밀, 마음으로 본존을 관하는 의밀을 말한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밀이라는 것은 양손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짓는 것이다. 즉 결인을 말한다. 밀교에서는 사람의 손가락을 수행자 자신의 안과 밖을 소통하는 접점으로 본다. 손가락은 안으로는 수행자의 내부와 통하고 밖으로는 제불의 불성과 서로 통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의 결인에 의하여 제불보살과 교감을 하고 수행자 자신의 신업을 부처의 신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수인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안테나처럼 제불보살의 불성과 교감하여 자신의 내부에 불성이 일깨워지는 작용이 일어나게 한다. 여러 가지 수인은 안테나의 모양이 각기 다른 것처럼 자신에게 불의 삼밀이



유이하게 갖추어지도록 자기가 관하는 본존의 특성에 맞추어 갖가지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밀은 어밀(語密)이라고도 하는데 입으로 진언을 외우는 것을 말한다. 진언이라는 것은 제불보살이 발성하는 비밀의 말씀이며 인간과 제불보살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지극히 신비하고 신묘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언을 통하여 수행자 자신의 심신이 조화 되고 진언이 지닌 특유의 파동력과 상징성을 통하여 수행자의 정신력을 극대화시켜 불성을 직관하도록 함으로써 수행자의 삼업이 불의 삼밀과 상응하도록 한다.

### 불교설화 <21>

## 산삼을 얻은 효자부부

아주 옛날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군 의당면 월곡리에 한 젊은 내외가 늙은 아버지와 일곱 살짜리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몸져 누게 됐다. 효성이 지극한 젊은 내외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여보,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속히 일어나시지 못할 중병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도 어디 좀 더 노력해 봅시다.」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젊은 내외는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다. 젊은이의 아내는 약으로 효험을 얻지 못하자 문득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어릴 때 목욕재계하고 기도하시던 친정어머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아내는 마치 훌륭한 영약이라도 얻은 듯 얼른 남편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것 참 좋은 의견이구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젊은 부부는 매일 새벽 몸을 단정히 하고 관음기도를 올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외는 마치 합창을 하듯 한마음 한목소리로 아버님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렇게 기도 올리기 백일째 되던 날이었다.

젊은이의 아내가 들에 나간 남편 점심을 챙기고 있는데 밖에서 목탁소리가 들렸다. 부인은 가만했지만 정성껏 쌀 한 되를 들고 나가 시주 나온 노스님께 공손히 절을 하고는 스님 바깥에 쌀을 부었다. 쌀을 받아 넣은 스님은 막 사립문 안으로 들어 서려는 젊은이의 아내를 불렀다.

「부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지요?」

「네, 저의 시아버님께서 벌써 여러 달째 병환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거참 안 되었구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스님은 무슨 말인지 하려다 그만 말끝을 흐리고 말했다. 「스님, 방법 있으시더구요?」

「글쎄, 있긴 있으나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아버님을 구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려면 주시면 무슨 일든 하겠습시다.」

「이 집 내외가 효자라는 소문은 들었으나 좀처럼 쉽지 않을 텐데...」

부인의 청이 하도 간곡하여 스님은 망설이면서 방법을 알려줬다.

「당신의 아들을 물에 삶아 아버님께 드리면 곧 일어나실 게요.」

「아들요?」

놀리는 부인을 남겨둔 채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 버렸다. 젊은 아내는 잠시 꿈을 꾸 듯싶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그녀는 남편 점심을 담은 함지를 이고 들로 나갔다.

그녀는 논둑길을 걸으면서 아버지를 위해 아들을 희생기로 결심했다. 다른 날보다 점심이 늦은데 아내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어디가 아프요?」

「아니예요.」

아내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으나 남편의 점심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내색도 하지 않았다.

「여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나본데 어서 이야기 해보구려.」

아내로부터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놀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여보, 아버님 병환을 고치는 일인데 주저해서 되겠어요? 아들은 또 낳을 수 있으나 부모님은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아내의 결심이 고맙긴 했으나 남편은 차마 승낙을 못하고 하늘만 쳐다봤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날 밤 일을 치르자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칠성은 그날도 밖에서 놀다가 돌아와 저녁을 먹고는 곤하게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노인은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며느리가 떨리는 손

으로 들고 온 약을 먹기가 좋라며 두 그릇이나 마셨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언제 아팠느냐는 듯 거뜬히 일어났다. 젊은 내외에게 아버님 병환이 쾌차한 기쁨은 잠시였다. 아들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쏟아질 뿐이었다.

그러던 이튿날 저녁 무렵, 밖에서 칠성이

엄마를 부르며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엄마, 어젯밤에는 서당에서 공부하다 늦어서 그만 선생님과 함께

자고 왔어요. 용서하세요.」

부부는 아무래도 꿈만 같았다. 그러나 눈앞에 서 있는 사내아이는 분명 자신들의 아들 칠성이었다. 엄마, 아빠가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동절해 하는 모습에 칠성이기가 이상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때문에 걱정하시다 화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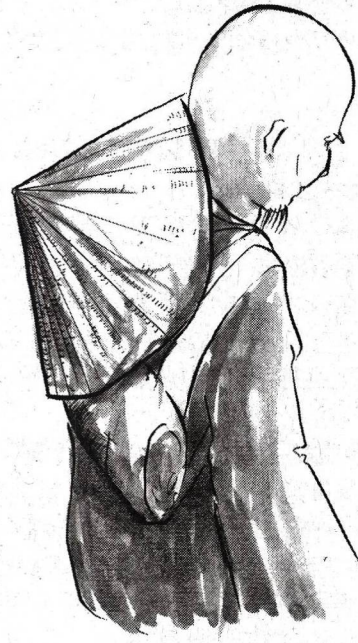
「아, 아니다.」

넋 잃은 사람처럼 제정신을 못가누고 있는 내외 앞에 이번엔 어찌 다녀간 노스님이 나타났다.

「너무 놀랄 것 없소. 그대들의 효심이 하도 지극하여 부처님께서 산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외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어 보았다. 솥속엔 정말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들어 있었다. 젊은 부부는 기뻐서 스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했다. 그러나 스님은 어느새 간 곳이 없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효행에 관한 글이다. 어떤 의약보다도, 진정한 효심이 앞서서 행이 따른다면 부처님께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효심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글이다. -최영해



## “예쁘기만 우리 며느라이, 힘내거라”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해요”

불교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인 '행복한 미소'에 지난달 27일 방송된 총지사 교도 이금복 보살님과 며느님 간의 사랑이 듬뿍 담긴 글입니다.

### 꽃배달

이금복 보살: 헤라이는 우리 큰 며느라이입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고 있죠?

항상 명랑하고 친절한 며느라이. 제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만 가득 안겨 주었지만 아무런 불평없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진 것 없는 부모마음은 시리도록 아프답니다.

스님!! 올해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앞으로 공부시키자면 많은 부담이 될텐데.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바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짝하답니다.

스님!! 우리 며느라이 힘좀내게 학부형 된 것 축하좀 해주세요.

아마도 병원으로 꽃다발이 간다면 힘이 날 것 같아 뜻만 시어머니가 몇 자 올려 봅니다. 우리 며느라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데요. 친절간 간호사로 상도 받았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시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 귀엽지 뭐예요? 그저 부처님의 가피인

줄입니다. 며느님(이혜란 씨): 행복한 미소에서 보내주시는 꽃 바구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쓰신 이야기로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 배달을 받았습시다.

어찌나 놀랍고 감사하던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꽃바구니!!

너무 멋지시죠~ 우리 어머니 ㅋㅋ 지난 여름 템플스테이에도 같이 가면서 좋아라 했는데..

이렇게 또 바구니까지~알라부~행복한 미소

저 오늘 병원(전..간호사)에서 스타 됐어요.. 동료간호사도,진료과장님들도,환자분들도 난리 났다는거 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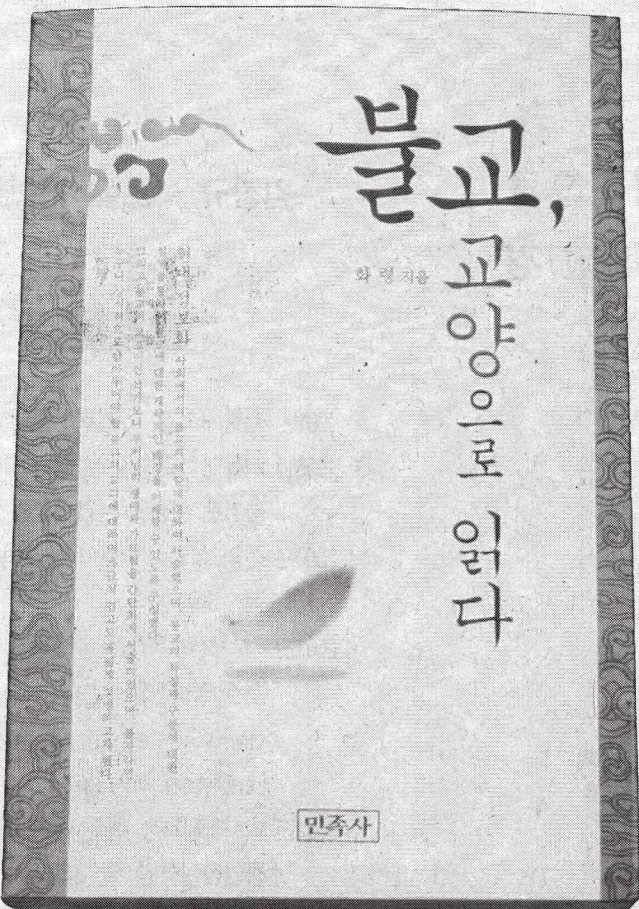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불교, 교양으로 읽다> 출간 안내

화령(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지음 /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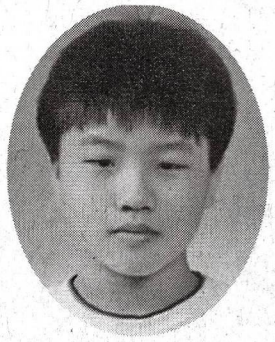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이 책은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간략히 서술하고 불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불교 교리에 대해 쉽고 폭넓게 설명했다.



# 총지문에

## 중학생이 되면서



오기훈 동해중 1-반

초등학교에 다닐 때가 어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니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걱정도 된다. '답십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제는 중학생이니까 초등학교 때와 달리 장난도 안치고 좀 의젓해져야겠다. 초등학교 때는 장난을 많이 쳐서 선생님들께 많이 혼났는데, 또 친구들과도 자주 싸웠는데 이제 친하게 지내고 배려해야겠다.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자아실현은 남보다 잘되는

것, 남이 존경할 만한 일을 이루는 것,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읽어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은 애벌레들이 나비라는 존재를 모른 채 기둥만 만들어대는 애벌레의 생활을 나타낸 책이다. 나는 이 책의 이기적인 애벌레처럼 되지 않고 진정한 혁명을 이루어 남을 위해 사는 나비 같은 존재가 되겠다. 부모님 말씀대로 어영부영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외적으로만 변하지 않고 마음도 자라서, 동생들과도 안 싸우고 잘 지내야겠다.

또 현실에 충실해 뒤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판타지 같은 책들은 이제 그만 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책을 많이 보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해 중학교에서도 잘 적응해서 영광이형 같은 학생이 되겠다. 숙제도 많다는데 걱정도 된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 문제 때문에도 고민이 된다.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하지만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기대가 되어 가슴이 '쿵쿵' 뚱다.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이 한인이 되면 좋겠다. 열심히 생활하는 '나'가 되겠다.

## 수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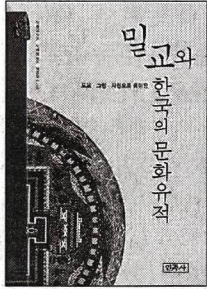
### 버려야 채울 수 있는...

오랫동안, 그냥 익숙한 것이어서	듣는 거
지니고 있었던 수족관을 오늘 버렸습니	오늘, 그 수족관이 버리고 있던 자리를
다...	보고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물고기 없는 수족관은 딱딱한 모래위에	삼월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가녀린 수목 몇가닥을 간신히 연명시키며	내 마음을 청소하듯
늘 마음에 짐 짊어짐 없었어서 무겁게 했던	그렇게 보내버린 어항처럼
만 오늘 그 부담스러움으로부터	내게 남은 크고 작은 추억의 편린들이
과감히 떨어져 울가분해졌습니다...	멀리 멀리 바람에 실려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무엇을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만	- 최영해

## 이달의 추천도서

### 밀교와 한국의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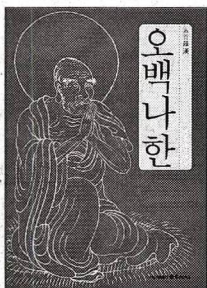
#### 이범교 지음/민족사



밀교는 3~4세기 경 관념적인 화문 중심이었던 대승 불교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례로 재구성한 것으로, 심오한 대승불교 이론을 재가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가 아닌 그림(만다라)과 설법이 아닌 진언·의례중심으로 풀이한 실천불교를 말한다. 『밀교와 한국의 문화유적』은 사진 277매, 그림과 표 286매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한 책으로, 밀교의 의미, 밀교의 발생과 전개, 밀교의 법통상속, 밀교의 교관론, 본체론과 불타관 그리고 인식론인 만다라의 상징해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오백나한

#### 진호 지음/휴먼앤북스



나한이란 아라한의 약칭이며 아라한은 범어 아라한의 음역으로 오백비구·오백상수라고도 한다. 아라한은 공양받아 마땅한 자, 공양으로 복을 심는 발, 진리에 상응하는 자, 나

### 고 죽는 문화에서 벗어난 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자 등으로도 불린다. 즉 나한은 불제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로, 이들은 생사윤회를 초월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며 매우 덕이 높은 성자로 추앙받았다.

이 책은 한국최초로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를 체계화한 것으로, 병진스님의 그림을 토대로 오백나한도와 그에 따른 계승들을 일일이 정리하고 있다. 불교의 세계와 속세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나한의 존재는 실제로 천태만상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불교가 민중과 더욱 친숙해지는 데 도움을 준다.

### 선시 깨달음을 읽는다:

#### 마음으로 읽는 선시 열대편

#### 이은운 지음/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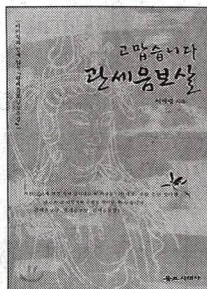


선시는 오도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 문화의 절정이다. 불교 철학이나 사상을 산문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직관적인 힘은 선시를 따를 수 없다. 마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보다 연인이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길의 훨씬 감동적인 것처럼 불법을 강요하지 않고 경물을 통해 넉넉히 드러내는 선시 한 편이 만 마디 법문보다 마음에 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13편의 선시는 모두 인구에 두루 회자하며 최고의 수작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기존의 선시집이나 선시해설서들은 승려들이 지은 시들을 두루뭉술하게 묶어놓거나 문학적으로만 접근하여 선시가 담고 있는 참된 불교적 의미를 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문인들이 지은 한시 중에서 선취가 물씬 풍기는 시들, 그리고 선승들이 지은 계승들 중에서도 선적 의미가 깊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시들만을 모아 문학적/종교적 깊이 읽기를 시도한다. 조용히 안으로 침잠하여 시를 감상하다 보면 존재의 심연을 찌르는 무궁무진한 선리를 깨달을 수 있다.

####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 이미령 지음/불교시대사



『법화경』안의 한 품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맛깔스럽게 읽어 낸 책.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주안을 둔 쉽게 읽는 경전 읽기에서 벗어나, 경전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실의 삶과 접목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도, 관음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나의 발심이 관세음보살이 되어 세상을 구제하는 보문품의 핵심을 짚어 준다.

#### 불교와 생명

#### 고영섭 지음/불교 춘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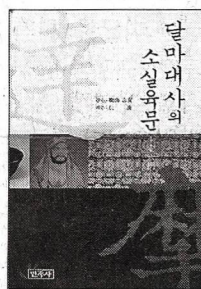
생명 또는 생명체에 대한 불교의 견



해를 밝히기 위한 책. 불교사상은 연기성 무자성성, 공성, 자비행을 통해 인간의 삶을 해명해 주고 있다. 하여 상호의존성, 비고유성, 비실체성, 상호존중의 기호 속에는 불교의 인간관과 세계관 및 생명관과 윤리관이 모두 담겨 있다. 이 책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생명 윤리라는 주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보여준다. 불교의 생사관, 자연관, 성별관, 낙태관, 출산관, 입양관, 해탈관, 효관, 출판관과 한국불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생사, 생애,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 달마대사의 소설유문

#### 인해 지음/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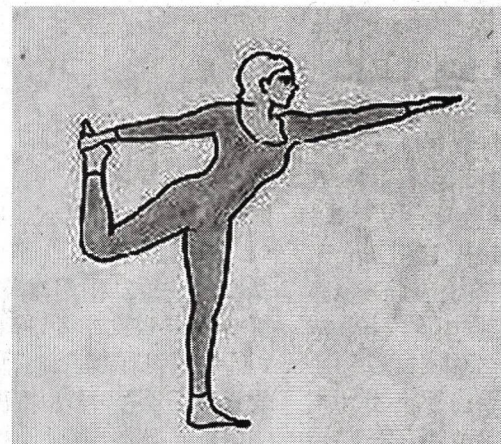
달마대사가 중국의 소설산에 머물면서 9년 동안 면벽수행하였던 여섯 가지 법문, 『소실유문』을 우리말로 옮겼다. 『소실유문』은 「심경송(心經頌)」과 「과상론(破相論)」, 「이종입(二種入)」, 「안심법문(安心法門)」, 「오성론(悟性論)」, 그리고 「혈맥론(血脈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종의 달마전집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달마대사의 선법(禪法)은 중국 선종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종선(南宗禪)의 성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실유문』은 달마스님의 깊은 체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초기 선법수행의 사상적 근거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이달의 생활요가

### 매일하면 좋은 요가 자세 (4)

#### 아취 자세



이 자세는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체위법으로 허리를 부드럽게 하고 어깨와 가슴을 펴주며, 다리를 아름답게 한다. 여성들이 이 자세를 많이 하면 몸매가 좋아진다.

#### 〈행법〉

- 1) 마운트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허리까지 올린다.
- 2) 이 때 오른 손은 오른쪽 다리발목을 가볍게 잡고, 왼손은 무릎을 받치면서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엉덩이 뒤로 내민다.
- 3) 연이어 왼손은 무릎에서 떼어 앞으로 쪽 뺀고, 오른 손은 오른쪽 발목을 잡고 뒤로 당기듯이 하여 상체를 숙이며 균형을 잡는다.
- 4) 자세를 좌우교대로 그림처럼 약 10~30초간 유지한다.

#### 〈건강효과〉

어깨결림, 휘어진 척추, 가슴통증, 복부비만, 변비, 좌골 신경통, 발목강화에 좋다.

#### 〈미용효과〉

대퇴부, 허리, 엉덩이 군살 제거  
\* 모든 자세의 첫 단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들어가고, 자세 완성 후 천천히 내린다.

# 꿈과 희망을 갖고 실천하는 충지인!



##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종보 100호 기념 특집>

# 한국불교의 전래와 밀교의 역사②

## 2. 신라시대의 밀교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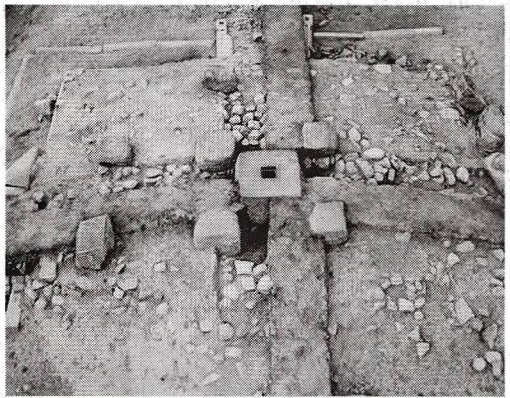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밀교승으로는 신라시대의 명랑 법사와 혜통 국사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밀본, 불가사의, 현초, 혜초, 해일, 오진 등의 스님을 들 수 있다.

### 1) 명랑법사(明朗法師)

명랑은 자장율사의 생질로 사문(沙門)이 되었는데, 선덕여왕 원년(632년)에 당나라로 들어갔다가 선덕여왕 4년(635년)에 신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때 명랑법사가 용공에 들어가서 비밀불교의 비법(秘法)을 전수받고, 황금 천 량을 얻어서 땅 밑으로 잠행하여 자기집 우물 밑으로부터 솟아나와서 거기다 절을 짓고, 황금으로 불탑과 불상을 장엄하고 절 이름을 금광사(金光寺)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제5, 神呪 제6 明朗神印條)

명랑이 당나라에 갔을 시기에 중국에서 밀교가 성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인도승인 선무외와 금강지가 당나라에 오기 이전시대로 잡부밀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많은 밀교경전들이 역출되었고, 바를 오게 하는 청우법(請雨法)이나 천수관음신앙의 천수관음법 등 여러 밀주법(密呪法)들이 유포되었다. 또 다리나 신주경(神呪經)들이 많이 번역되었는데, 명랑은 이와같은 경전을 통해 밀교의 비법을 전수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명랑이 문무왕 8년(668년)에 문두루 비법으로 당나라를 물리쳤다는 기록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던 이 문두루 비법은 바로 밀교의 신밀(身密)을 말하는 것이다. 문두루는 '무드라'(mudra)를 음역(音譯)하여 붙여진 것으로 바로 결인(結印)을 의미한다. 즉 명랑은 결인이라고 하는 문두루의 비법으로 의적을 물리쳤던 것이다. 명랑법사가 개창(開創)한 '신인종(神印宗)'은 바로 '인계(印契) 결인(結印)'을 주로 행하였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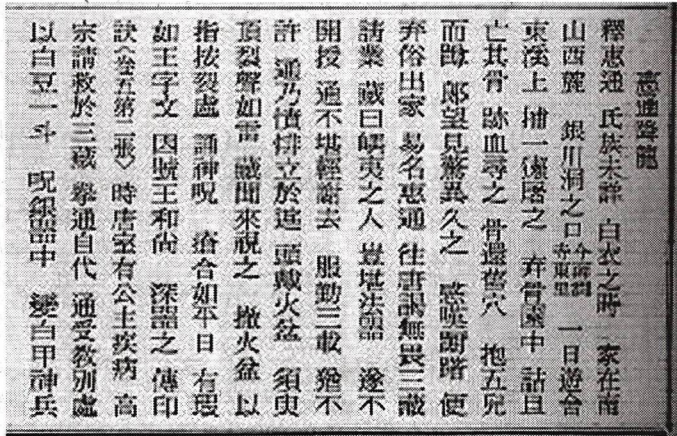
△명랑 법사가 문두루 비법으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건립한 사천왕사의 절터. 이 절터에 목탁이 세워진 흔적이 남아 있다. (자료 출처 : 블로그 국정영상원)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명랑이 용왕에게 전수받은 비법으로 경주의 낭산(狼山)의 신유림(神遊林)에 단(壇)을 쌓고 다섯 방위의 신(神)을 모시고 유가승(瑜伽僧) 12인과 같이 문두루의 비법을 행하여 풍랑을 일으켜 바다를 건너오던 당나라 군대를 싸우기도 전

에 모두 침몰시켰다고 한다. 그리하여 단을 쌓았던 자리에는 절을 지어 사천왕사(四天王寺)라 하였고, 명랑은 신인종(神印宗)의 종조(宗祖)로 숭앙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신인종은 신라 전역에 퍼졌고 여러 차례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 신인(神印)의 주력(呪力)으로 물리쳤다고 한다. 특히 김유신 등이 건립한 경주의 원원사(遠願寺)는 통일신라시대 문두루비법의 중심도량이기도 하였다.

### 2) 혜통국사(惠通國師)

명랑과 더불어 혜통 또한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밀교승이다. 『삼국유사』 권5 '신주승(神呪僧) (神呪編) 혜통왕후조(惠通降龍條)에 혜통국사의 일대기가 전제되고 있다. 혜통국사는 문무왕 시대의 스님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선무의 삼장으로 부터 밀교의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혜통은 당시 중국에 퍼져있던 정순밀교(正純密教)를 전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중국



△『삼국유사』 권제5 '신주(神呪)제6'에 나오는 혜통국사 관련 내용.

에 선무의, 금강지의 양 삼장에 의해서 체계화된 정순밀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신라에서 잡부밀교가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명랑과 혜통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의 밀교적 요소들이 있어 왔던 것이다.

여기서 잠깐, 혜통국사와 선무외의 관련설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삼국유사』의 혜통국사 전기를 보면, 선무의 삼장과 관계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혜통국사가 중국으로 간 시기와 선무외가 중국에 왔다는 입당(入唐)연대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양자간에 교류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선무의 삼장이 당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개원(開元) 4년설이 유력하다. 이때가 당 현종대로서 AD 715년이다. 그런데 혜통국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연대는 인덕 2년, 즉 AD 665년이다. 문무왕 5년 때의 일이다. 혜통이 신라에 돌아온 후 50년이 지난 후에 선무의 삼장이 중국 장안으로 도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혜통은 누구에게 밀교를 받았던 것일까? 연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과연 『삼국유사』의 기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혜통 국사가 신라의 대표적인 밀교승이었다는 사실은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 잘 나타나 있다. 기록을 보면, '혜통화상이 진언종의 개조(開祖)이며 해동 밀종(海東密宗)

에는 오로지 혜통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비추어 볼때 혜통은 신라밀교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밀교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혜통의 밀교가 중국 선무의(善無畏)의 밀교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혜통이 개종(開宗)한 밀교의 종명(宗名)에서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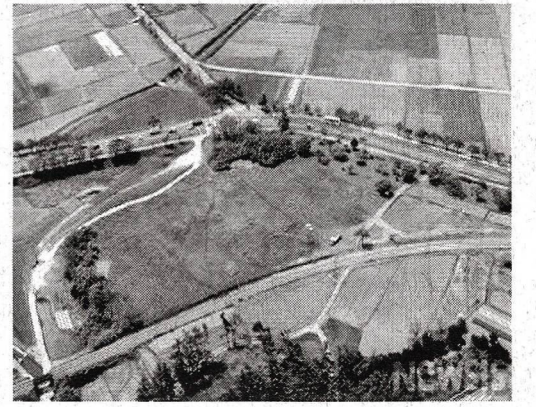
혜통의 밀교를 총지종(總持宗) 혹은 진언종(眞言宗)이라 이름하는데, 총지(總持)는 다리니(陀羅尼), 즉 진언(眞言)이란 뜻으로 '한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밀본은 『관정경』에 입각하여 강력한 치병주술(治病呪術)을 행한 신라 최초의 밀교승이라면, 명랑법사는 『관정경』에 입각해서 밀교의례에 따라 호국법회를 행하였다는 점에 주목된다. 밀교가 호국법회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신라불교에서 밀교가 국가적으로 큰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좌강회(百座講會)와 팔관회(八關會)를 행하였다는 점, 『관정경』에 의한 문두루 비법을 행하였다는 사실 등은 이미 신라 불교에 호국법회로서 밀교 의례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술의례에 있어서 호국사상(護國思想)과 유가사상(儒家思想)이 담겨 있는 『금광명경(金光明經)』, 『대방광심륜경(大方廣十輪經)』 등의 밀교경전이 활용되었다는 점은 신라 불교가 곧 밀교의 호국의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그 외의 밀교승

이외의 신라 밀교승으로 해일, 혜초, 명효, 무일, 무루, 현초, 의립, 오진, 불가사의, 균양 등이 활동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도선, 광학, 대연, 담제, 흥법, 묘청 등이 활동하였다. 그



△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번지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의 호국사찰 '사천왕사지' 전경. (사진출처 : 문화재청)

와서 총지종으로 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를 거치며 융성하였던 밀교는 조선시대에 오면서 오백 년의 기나긴 법난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밀교종파도 파란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조선 태조는 건국 7년에 88개의 사찰만 남겨두고 모든 사찰을 폐지하였고, 태종은 12개의 불교종파를 7개로 통폐합하였으며, 세종은 이를 다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으로 통합하고 각각 18개의 사찰만을 존속시켰다. 밀교의 경우 신인종(神印宗)은 중도종(中道宗-일명 삼론법성종三論法性宗)이라 함에 합쳐져 중신종(中神宗)으로 되었다가 결국 교종(敎宗)에 병합되었고, 총지종(總持宗)은 율종(律宗)인 남산종(南山宗)과 합쳐서 총남종(總南宗)으로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선종(禪宗)에 병합되었다.

결국 신라의 명랑법사와 혜통국사가 세웠던 밀교종파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종과 선종에 흡수되어 그 이름마저 소멸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교의 양종까지도 조계종(曹溪宗)이라는 하나의 종명으로 묶어 버렸다. 오늘날 한국불교에는 마치 조계종만이 있어 왔던 것처럼 오해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조선조에 쇠퇴의 길로 접어든 불교는 조선조 일부 왕들이 불교 옹호정책을 펴는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밀교는 통불교 속에 융합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특히 조선말 일제 36간의 식민탄압 속에 불교 뿐만 아니라 민족의 모든 문화가 말살되었고 승려의 도성출입이 금지되는 등 일제하의 한국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므로써 밀교는 기억에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통불교 속에 융합되어 사라졌다고 여겨진 밀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모든 의식과 작법들이 곧 밀교의 의례요수법들이기 때문이다. 진언과 다리니, 의결작법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방 이후 현대 한국밀교종단이 탄생하면서 한국밀교는 새로운 중흥을 맞게 되었다. 질서정연(秩序整然)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으로 밀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다음호에서는 '현대 한국밀교종단의 탄생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진언(眞言)은 선법(善法)을 능히 가지고 악법(惡法)을 막아주고 물리친다

량없이 많고 깊은 뜻을 섭지(攝持)하고 기억하여 잃지 않으며, 온갖 선법(善法)을 능히 가지고, 갖가지 악법(惡法)을 막아주고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지'가 '진언 다리니' 이므로 혜통의 총지종은 곧 진언 다리니를 수행방편으로 삼고 있는 정순(正純)한 밀교의 형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개성의 총지사(總持師), 전주의 주석원(呪錫院), 경주의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 등이 총지종의 중심도량이었다.

### 3) 밀본 법사

그 외에 명랑과 동시대 사람으로 밀본 법사(密本法師)를 들 수 있다. 그는 주술에 능하였으며 선덕여왕을 비롯한 재상(宰相)들의 병을 가지법(加持法)으로 고치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 널리 민중들에게 선풍되었다. 밀본(密本)은 명랑(明朗)과 혜통(惠通) 보다 앞서서 신라 초전기 불교에 밀교 신앙을 태동시켰던 분이다. 밀본은 『약사경(藥師經)』을 치병주술(治病呪術)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리니경전이 신라시대에 널리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약사경』은 『관정경(灌頂經)』에 편입되어 있는 경으로 약사여래가 일체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정경』은 전체적으로 업설(業說)을 중심으로 치병제역(治病除厄)의 주술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밀교가 신라불교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

러나 상세한 전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 3. 밀교 종파

신라시대의 밀교종파로는 신인종(神印宗)과 총지종(總持宗)이 있었다는 사실은 『삼국유사』에 전제되고 있다. 명랑은 선덕여왕 원년(632년) 중국에 들어가서 수학한 후 귀국하여 금광사(金光寺)를 창건하고 신인종(神印宗)을 세웠다. 명랑은 『불설관정불보명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 의한 불보살의 결인의 비법, 즉 문두루비법을 전래하였다. 문두루비법은 신인(神印)을 뜻하는 것으로 손으로 결인을 맺는 수행법을 말하는 데, 신인종의 종명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다. 신인종 계통을 계승한 고승으로는 안해, 낭용, 광학, 대연 등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의 건국에서도 밀교의 비법과 호국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개성에 현성사(現聖寺)를 지어 밀교의 근본도량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전제되고 있으나 이들 고승(高僧)들에 대한 전기(傳記)는 미상(未詳)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신라시대의 또다른 밀교종으로는 혜통이 세운 총지종을 들 수 있다. 총지(總持)는 진언·다리니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총지종이라는 종명은 곧 신주(神呪)·진언(眞言)을 주로 행하는 종단임을 추측케 한다. 이 총지종(總持宗)의 종명이 처음에는 '진념업(眞念業)'이라 불리다가 고려말 내지 조선초에

#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 바라밀 공부방은 방치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 프로그램

-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을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은 위한 후원을 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0705



교계소식

# “티베트사태 평화적으로 풀어라”

## 국내 종교계 중국정부에 촉구



◇티베트사태 평화해결 촉구 집회.

티베트 사태에 대해 국내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중앙종회가 중국 정부의 각성을 요구했고, 개신교회에서도 티베트 민중들을 거두고 나섰다.

특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초청을 추진한 바 있던 참여불교재단은 ‘티베트 학살 저지’와 ‘평화를 위한 국민행동’(가칭 티베트 국민행동)의 구성에 나서는 한편, 티베트 관련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매주 월~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티베트를 위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여불교재단 연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속히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소집해 티베트에서 자행된 학살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꾸고 발전시켜 온 엄연한 자주 민족인 티베트인들은 중국 정부가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티베트를 무력 점령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수천 미터 고지의 설산을 넘어 수만리의 망명길을 떠나면서도 중국에 대한 적의와 원한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자비와 자연과의 조화를 옹호하는 평화애호 민족”이라면서 “한국과 더불어 대승불교를 발전시켜 왔고, 유가와 도가사상을 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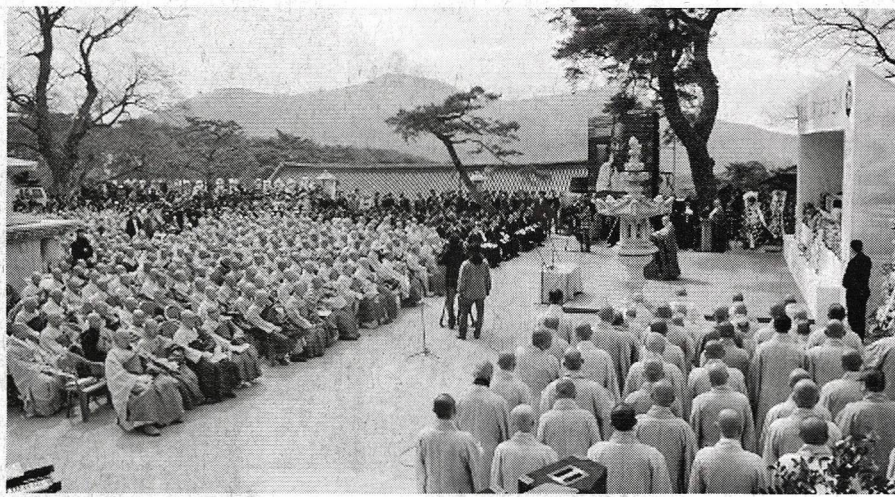
생시켜 여러 이웃 민족에게 전해 온 중국이 티베트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 대한 무력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는 비인권국가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수 개신교회 목소리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연론회는 “인권문제는 인종과 종교를 떠나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폭압적으로 들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교인들에게 ‘티베트 시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폭력진압이 중단되고, 티베트인들의 운명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도록’ 매일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것’을 제안했다.

# ‘禪風’ 진작한 ‘천진도인’

## 원담대중사 영결식 엄수



◇수덕사에서 엄수된 원담 대중사 영결식 장면.

덕총총림 방장 원담 진성 대중사의 영결식이 3월 22일 오전 예산 수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인연 따라 모습을 나누고 세상을 종횡무진하더니, 오늘은 눈 앞에서 묘진을 나누어 두출두불하고 은연재재함을

보입니다. 공적하고 응연한 진상을 우리에게 보인 것은 노화상의 활종특사의 소식”이라고 부여했다.

원로의장 종산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삼라만산과 덕송산 초목이 소생하려는 호시절인 파사로운 불발에 오고 감이 없이 가셨으니, 가고 음이 없이 다시 사파에 오시어 여서어서 환도중생 하시옵소서”라며 원담대중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도 추도사에서 “대중사께서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보셨다”면서 “적정열반의 세계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속환사바하시어 미혹한 중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추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불자회장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큰스님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선농일여의 정신을 진작하시고, 직접 논밭을 일구며 이를 실천하셨다”면서 “큰스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담아 선진화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조사했다.

## 만해 대상 평화부문 인도 로카미트라 법사 평화 부문 수상자 로카미트라 법사

만해대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는 3월 14일 2008년도 제12회 만해대상 수상자로 평화부문 로카미트라 법사(인도 불교해방 운동가), 학술부문 김태길 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문학부문 이영림 비평가(평론가), 포교부문 헤자 스님(도선사 주지),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 등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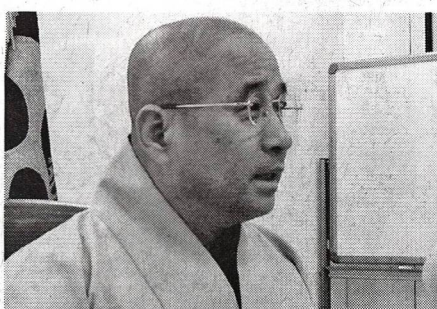
올해 수상의 특징은 지난해까지 수상된 실천·예술 등 6개 부문이 4개 부문으로 조정된 것이다. 대신 포교부문 수상자를 헤자 스님과 로버트 버스

웰 교수 공동 수상으로 선정했다. 평화부문 수상자인 로카미트라 법사(본명 제레미 구디)는 1947년 런던 태생으로 교직에 종사하다 불교에 귀의한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1979년부터 인도에서 현재까지 30여년간 인도사회의 카스트제도 철폐와 불교개종 운동 등에 헌신해 온 불교인권운동가다.

한편 부문별 수상자의 상금은 3000만원이며,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다.

## 불교방송, 불교TV에 통합 제의

### “지상파-케이블 윈윈 하자”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

불교방송이 포교활성화를 위한 영상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스님)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상포교의 활성화는 시급하다”며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불교방송과 케이블 방송채널 사업자인 불교TV가 가진 장점을 살려 통합한다면 새로운 영상포교 미디어 매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방송은 이를 위해 2006년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영상사업 진출을 결의한 바 있고, 지난 2월 불교TV에 통합을 공식 제안했으나 불교TV측은 아직까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통합을 위해 현 불교TV 주식의 8%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방송이 불교TV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고, 불교

TV도 불교방송 이사회에 이사를 편견해 상호지분을 획득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됐다. 두 사업체의 통합작업을 전담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해 이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은 “두 사업자가 통합될 경우 매체 영향력 증가, TV 프로그램 상호 교환 가능성 등의 매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지만, 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에 걸맞는 IP(인터넷) TV 등 자체적인 영상사업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권위, 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말라” 권고

### 종자연 헌법 소원 및 투표소 현황 분석자료 큰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 설치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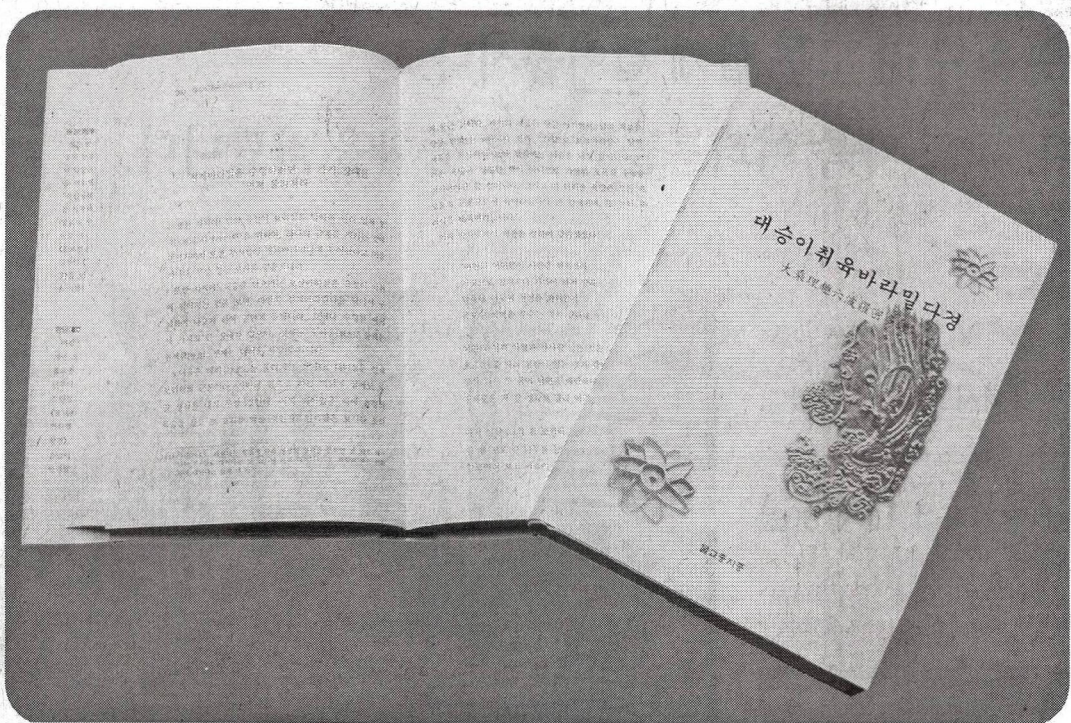
인권위는 선관위에 “공직선거 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중 일부라도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를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심리적 부담으로 느끼거나 나아가 투표행위 자체를 꺼리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인권위가 이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된 데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역할이 컸다. 종자연이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는 종자연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선관위에 이와 같이 권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전국 투표소 중 종교시설 내 투표소의 비율은 8.9%(1만3178개소 중 1172개소)였지만 서울 지역은 무려 23.1%(2210개소 중 511개소)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선관위도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선관위는 이미 종교평화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가 지난 제17대 대선 직후 보낸 ‘대통령 선거 종교시설 내 투표소 문제에 대한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대선 때 논란을 일으켰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시설로 대체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구 내 종교시설 투표소를 대신할만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 불교총지종법장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총기 FOCUS / 대구 경북 사원탐방**

# “향긋한 봄내음 종단 가득하길”

우리 정보 편집팀은 지방 통신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종보에 대한 관심과 통신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이틀이라는 긴 여정에 올랐다.

서울을 벗어나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황사의 영향 때문인 듯 미세 먼지의 연무가 시야를 뿌옇게 흐려 놓아 한껏 뜸해 있던 마음들을 차 가리얇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어느 새 봄기운이 가득한 시골들녘엔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짐을 느낄 수 있었고, 산수유도 제법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구 팔공산 갖바위의 정기를 받으면서 영천에 이르니 단음사 통신원 보살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은해사 절집 앞에서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잠시 경내를 둘러 보았다.

단음사를 먼저 방문하려고 계획하였지만 때마침 스승님들의 교구회의가 있는 바람에 은해사를 먼저 방문하게 되었다.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거나 구름이 피어날 때면 은색의 바다가 물결치는 것 같다고 해서 절의 이름을 은해사(銀海寺)로 지었다고 한다. 게다가 대웅전 현판이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쓰신 글씨로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대웅전을 둘러 보고 지장전을 지나 우리 편집팀들의 관심사인 수립장을 둘러 보기로 했다.

수립장은 사람이 열반하게 되면 화장한 후 습골한 것을 나무 뿌리 주변에 뿌리는 한 방법으로 우리 종단도 이러한 사업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내한 몸도 새로운 몸으로 바꿀 때는 자식들에게 이같은 수립장으로 해달라고 해야 겠구나 마음속으로 가만히 다짐을 해보았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은해사 말사인 거조암(居祖庵)에 들렀다. 그곳은 오백 나한님을 모신 곳으로 '아미타불이 항상 상주 하신다'고 하여 불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은해사를 두루 둘러본 우리 일행은 단음사로 향했다. 이름 그대로의 단아한 모습이 볼수록 정겹다. 얼마 전에 봉안한 본존과 만다라 모습이 한눈에 들어 왔다. 법당은 비교적 작은 편이었지만 그 안에서 스승님과 보살님들의 교화 발전과 웅맹정진하시는 모습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스승님께서 "보살님들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정진 하신다"고 자랑하셨다. "요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그 가치를 느끼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포교 방법이 바뀌어야 교화도



▷포항 수인사 지공 주교님의 족석설법.



△흥해 선림사 서원당 앞에서.

될 수 있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면 편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곧 불교에서의 참 수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튿날 어느 노보살님께서 사신다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자신은 농부로서는 대학생이라고 자랑하시면서 매일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정리도 나가신다는 데 일흔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그 마음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가 몸과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는 듯이 보였다. 수행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 하시고 내한 몸 힘들어도 남들이 편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열심히 웅맹정진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었다.

영천을 떠나 선림사를 찾았다. 경내로 들어서는 순간 앞마당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 우리 일행들 중 놀라지 않은 이가 없었다.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온갖 정성으로 가꾸시는 정사님과 웅맹정진하시는 전수님께서 오랜 수행의 참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두 분 스승님께서 수계 후 줄곧 이곳에서만 교화하시고 수행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노보살님들 밖에 안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년 퇴임을 앞두신 전수님의 얼굴에는 자못 격정이 가득하셨다.

스승님과 점심 공양을 하고 수인사로 바삐 움직였다. 이번 달 종보에 실을 진언행자 가족 취재가 있어 수인사를 반드시 들려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공불사 할 때 다녀간 곳이라서 그런지 더욱 정겹게 느껴졌다. 웅장하고 근엄한 자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수인사는 나오는 오래전에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시절에 경주 국광사의 학생회에서 활동할 때 수인사 학생회와는 체육대회라든가 교화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같은 추억도 많은 편이다.

법당에 잠시 들러 참배하고 나와 스승님께서 보살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수행 정진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다. 수행은 몸이 편해지는 해탈이 되지 않으며, 고행이 뒤따르지 않은 수행에는 공덕도 없다. 수행은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뀌 나가야 하며, 스승님은 단지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라고... 귀가 열려야 해탈할 수 있는 법. 보살은 행동이나 언행이 무엇보다 달라야 한다고 하셨다.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듯 모든 이치는 이와 같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심으려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법당에 나와야 공덕이 생기고 해탈이 되는 길이다. 또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셨다. 내가 지어 내가 받는 법이라고... 참으로 훌륭한 설법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마른 대지 위에 단비라도 내린 기분이었고, 우리 자



△영천 단음사 서원당에서.

신을 새삼스럽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봄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향기도 있는 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향기를 뿜어 낼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생각이 불현 듯 떠올랐다. 내 자신을 조금만 버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도 같았다.

자비로우신 스승님의 배움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많은 깨달음으로 한층 가벼움을 느꼈다. 시간적인 제한 등으로 보살님들을 모두 만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짧은 여정에 비해서는 얻은 것이 참으로 많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작은 사찰로서의 교화에 어려움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을 뿐만 아니라 교도들간 교류 기회도 많이 가져야 종단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 보았다. 향긋한 봄 내음이 우리 종단을 휘돌아 온누리에 가득 뿜어지길 가만히 소원해 본다.

-최해선

### 이달의 사찰음식

#### 승소(僧笑), 들깨 칼국수

우리나라에서 밀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었다고는 하지만, 생산량은 그다지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송나라 사신 서공이 쓴 『고려도경』에 보면 주로 화북지방에서 수입하여 사용한다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한 곡물로 여겨 제례상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다.

한편, 사찰에서는 면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고 여러 음식 중에서 국수 맛이 으뜸(食味十餘品而麵食爲先)이라고 『고려도경』에서 전하고 있으니, 이미 조선시대 이전에 국수재료 및 국물 종류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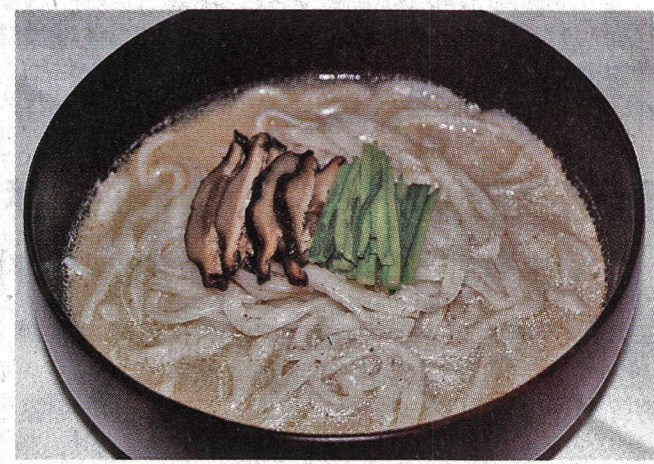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님들이 드시는 국수를 왜 '승소(僧笑)'라는 별칭으로 불렀을까이다.

육편에서 '소(笑)'를 찾아보니 종류가 많기도 많다. 그 중에 천년만만 한 갓난아기의 미소와 반가사유상 및 서산 마애부처님의 미소와 견줄 수 있는 미소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미소는 어떨까? 큰방 좌복에 무심히 앉아 공양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며시 풍겨오는 향긋한 들기름과 면 특유의 향기에 잔잔히 웃음 짓는 스님들의 미소, 이제는 온갖 번뇌 망상과 오욕락에서 벗어난 노스님의 미소!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에는 노스님들께서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띠시며 '승소' 드시는 모습이 불현듯 보고 싶다. 들깨가 불로장수의 식품으로 알려진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필수지방산인 리놀산과 수종의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놀산 등 향긋한 방향(芳香)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욕을 돋우며, 소염·소담 작용이 있고 변비에도 좋은 식품이다.

노스님들께서 식전에 들기름을 한 수저 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부탄력과 흥안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다.



#### ■재료

밀가루 3컵, 표고다시물 4컵, 들깨 1컵, 애호박 반 개, 은행 3알, 표고버섯 4개, 소금, 깨소금, 식물성기름

#### ■조리법

1. 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하여 밀대로 알맞게 밀어 5cm 폭으로 만든 다음, 굵게 채치듯이 썬다.
2. 들깨는 잡티를 골라내고 물에 푹 담갔다가 물을 부어 가며 맷돌이나 믹서에 간다.
3. 애호박과 표고는 각각 굵게 채를 썰어 기름을 두른 후 라이팬에 볶다가 간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맞춰 따로 담아 둔다.
4. 삶은 표고다시물에 칼국수를 넣고 애벌 삶아서 건져낸다.
5. 4에 들깨즙(또는 들깨가루)을 넣고 곧바로 끓인 후에 애벌 삶은 면을 다시 넣는다. 들깨국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맛이 난다.
6. 상에 낼 때는 볶은 애호박과 표고, 은행을 얹어 낸다.

## 자비신행회 성지순례 및 건강걷기대회

위드다르마, 자비신행회에서는 불교충지중 괴산수련원 성지순례 및 봄철 건강걷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물 좋고 공기 맑은 아름다운 산과 울창한 숲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봅시다.

참가비는 괴산수련원 '벚꽃나무 심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도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8. 4. 12(토)
- 장 소 : 불교충지중 성지 괴산수련원
- 출 발 : 당일 오전 8시 30분 총지사, 밀인사에서 각각 출발함
- 참가비 : 1만원
- 준비물 : 점심, 간식, 물
- 건강걷기 괴산수련원 입구 마을 이평리에 집결하여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하산시간 :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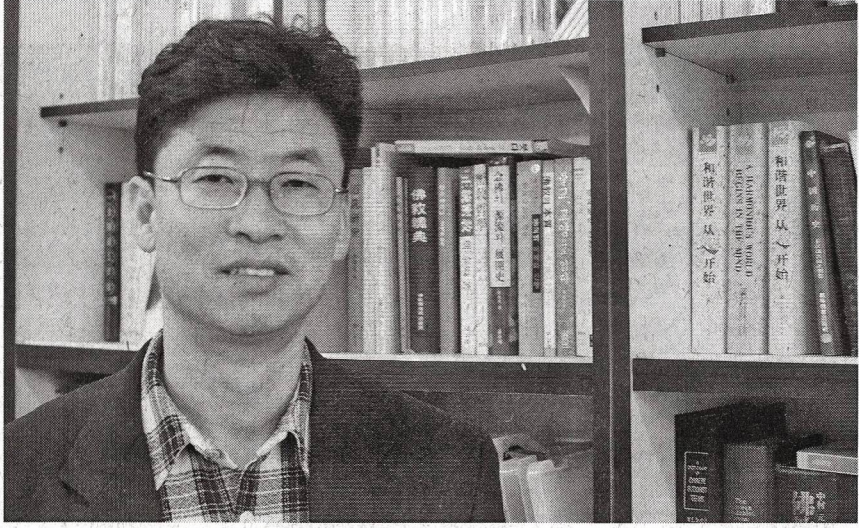
\*이동차량 배정을 위해 당사원 주교에게 4/9일까지 참가 신청 바랍니다.

위드다르마/자비신행회 지도법사 범등 합장



# “국제화와 교도 교육 통한 종단 중흥”

## 보정 김종인 박사 ‘님의 침묵 평설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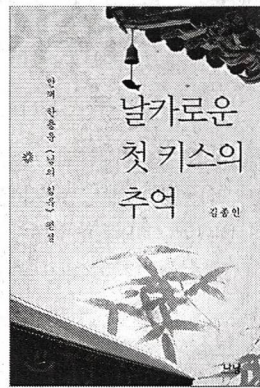
충지종 중앙교육원 김종인 박사.

‘한국의 대학과 지식인은 왜 몰락하는가’란 책으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주목을 받은 충지종 중앙교육원 김종인 박사(보정)가 최근 만해 한용운 선사의 ‘님의 침묵’에 대한 평설집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출간했다. 문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종인 박사의 이 책은 불교신문뿐 아니라 조선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서도 비중있게 소개되었다. 이 책은 ‘님의 침묵’에 대한 기존 학설을 뒤집고 만해 선사의 시를 독립운동가의 조국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불교 현대화, 나아가서는 현대인의 감수성의 표현으로 본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단에 들어온 지 올해로 5년이 되어 가는 김종인 박사는 불교학계에 참신한 시각으로 촉망받는 학자일 뿐 아니라 충지종 중흥의 기수이다. 김종인 박사는 그동안 “만해와 성철”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이 성철 스님의 산중불교가 아니라 만해선사의 현대불교, 대중불교임을 설교하여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종종 사회 문제가 되는 일부 승려들의 폭력적 형태가 선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연관이 있음을 해명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등을 수료하고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브룩) 비교종교

학과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종인 박사는 충지종 종단의 국제화와 교도 교육을 통한 종단 중흥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인 박사는 정부의 한국문화 국제화 사업에 종단이 기여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국제화와 한국불교의 국제화, 그리고 충지종의 국제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지난 해에 국제제가불자대회를 기획하여 성공리에 마쳤다.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개최된 이 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 재가불교 지도자들을 초빙하여 한국문화와 충지종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 대회를 통하여 충지종은 구미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생활불교종단이며 한국 불교 종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제제가불자대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충지종이 주관하여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김종인 박사는 현재 국제불교문화 교류센터의 건립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국제제가불자대회의 기획 당시 함께 기획된 이 안은 종단협의회를 거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불교계 공약 사항으로 되었으며, 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김종인 박사는 이 사업을 범불교적으로 성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김종인 박사는 이런 외적인 사업보다도 충지종에 더 절실한 것은 교도들에 대한 교육이라 믿는다.

충지종 교도들은 염승 정진에는 뛰어나지만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는 타 종단에 비해 많이 뒤쳐지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의 포교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야심경의 이해’를 저술하여 충지종교도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으며, 충지종보 편집팀 구성과 종보 통신원 제도의 기획 조직을 통하여 교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부산 정각사에 단월회의 확대와 불교교양대학의 개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는 “서울 능인선원이나 대구 영남불교대학은 교육을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매머드급 사찰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정각사 불교교양대학의 개설을 통해 젊은 불자들을 대량 입교시키는 것이야말로 종단 중흥의 실질적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신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 “일상의 빛나는 순간 작품에 담아”

전월선 '일상日常'展 8일까지 창원 대안공간마루



전월선(마산 운천사 교도) 작가의 개인전 '일상日常'이 오는 8일까지 경남 창원 대안공간마루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엔 동백, 목련 등의 꽃을 비롯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주부의 파스 한 시선으로 바라 본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월선 작가는 “베란다에서 햇살이 빛나는 순간과 같은 우리 일상이 보이는 작지만 소중한 기억들을 구상과 반추상 작품에 담아 봤다”며 “가사일을 하는 틈틈이

이 짬을 내 작품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성산미술대전 초대 작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전월선 작가는 2001년 경남미술대전 입선과 2004년 성산미술대전 특선, 2005년 한남미술대전 특선, 2006년 현대회화전 특선 등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으며, 2000~2007년 형상회 회화전(창원 성산 아트홀), 2005년 대한민국 국제환경엑스포(서울 코엑스), 2007년 향토작가전(마산/창원) 등을 개최한 바 있다.

### 세상사는 이야기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 한 날이 며칠 전 일인 듯 한데 벌써 봄은 찾아왔다. 내가 미처 느끼기도 전에 바로 내 앞에까지 다가왔다. 춘삼월이 지나가려 한다. 내 앞에 찾아 온 봄을 난 아직 환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내겐 봄이 오지 않았다. 봄도 마음도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난 아직 추워서 겨울 옷을 그냥 입고 있다. 마음까지 추운 것 같다. 계절의 봄은 일찍 찾아 왔는데 내 마음의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늘 있는 일상에 젖어 봄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는 탓일까?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서일까? 나 혼자 지난 계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보내 주신 '사람문 밖에서' 서성이던 봄이 뒷마루에서 즐기고 있는 고양이를 수염에 앉았습시다. 라는 핸드폰 문자에서 난 처음으로 '아! 봄이구나' 하고 내

주위를 둘러 보았다. 아파트 화단에 있는 산수유 꽃망울도 곧 터질 듯 부풀어 있고 땅에서는 새싹이 앞다투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산수유 꽃은 꽃망울을 세 번 터트리라고 한다. 제일 곁의 큰 꽃망울을 터트린 후 속의 각각의 작은 꽃망울을 터트리라고 마지막에 꽃술이 퍼지며 드디어 꽃을 활짝 피운다고 한다. 다른 나무들 보다 일찍 꽃피우기 위

를 준다. 이런 새로운 희망이 없으면 우리 사는 인생 너무 힘들고 삭막하지 않을까? 희망이란 단어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늘 같이 있고 늘 내게 다가와 자기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기를 바라며 눈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몰라보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가질 때도 있다. 인간은 강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때도 있다.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

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 보았다.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온 세상이 봄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나도 이제 나의 봄을 맞이 해야겠다. 두 팔 활짝 벌려 이 찬란한 봄을 내 가슴에 가득 채워야겠다. 눈부신 봄 햇살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었다. 아! 나도 드디어 봄과 하나가 되었구나. 내 마음이 마치 봄 나비라도 된 듯 이리 저리 봄 여행을 떠나고 싶다. 아니, 친구들과 같이 가까운 산이라도 가고 싶다. 지금 당장 우리 동네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와 함께 뒷산이라도 가자고 전화를 해야겠다. 왜 이리 마음이 콩닥콩닥 뭉개져 버린 걸까? 마치 어린 시절 김밥 싸서 나들이 갈 때의 그런 설렘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왔다. 마치 내 몸 속에서 온갖 새싹이 움튼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드디어 내게 새 희망이 막 밀려오고 있다. 행복과 함께, 오늘 뒷산에 가서 봄나들이라도 캐어야겠다. 저녁 상에 봄 내음이 향긋한 된장국과 봄나물을 올려 봄 향기에 흠뻑 젖어 봐야겠다.

- 박묘정

### 봄은 어디에 있는가

해 이들은 추운 겨울날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춥다고 그냥 웅크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춥다고 겨울 코트 속에서 네 활개를 접고 웅크리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해진다. 모든 나무들이 새봄을 맞이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지. 새봄다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희망

고 새이를 돌아나게 하는 나무들의 힘, 언 땅을 뚫고 연하디 연하디 어린 새싹을 돌아나게 하는 힘, 조그만 몸에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꽃을 곱게 피우는 힘. 이 얼마나 위대한인가? 인간은 이런 위대한 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로 보일 때도 있다. 작은 어려운 일에 무너지고 작은 장애물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길 멈출 때도 있다.

### 기고

### 정진後에

- 정각사 일심각

우리 집 안마당에 가을 구화 향기가 상쾌도 하지요. 구석구석, 모퉁모퉁, 울긋불긋 오색을 띄우며 나를 반겨 주구려. 나는 너가 시들면 잡아 줄 수가 없구려. 질 때는 미련 없이 가고, 돌아올 때는 꽃을 피우고 오구려.

나무야 나무야, 장미 나무야, 앙상한 너의 몸이 무슨 가치를 총총 박고서 예쁜 장미 한송이 가을 바람에 휘날리며 뽐내고 있네. 예쁜 장미 한송이 외롭게 보이느냐.

바람아 바람아, 시원한 바람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온 우주 만물을 희롱하면서 꼭 막힌 내 가슴을 활짝 여는데 우리 인생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해매고 산단다.

우리 집 앞뜰 동백나무 예쁘게도 자라지요. 사철로 변함없이 푸른 잎을 띄우며 눈보라가 몰아쳐도 움츠리지 않고 저울이 되면 몽골몽골 꽃뽀오리 봄은 입을 뿜고 웃으며 나를 반겨주지요.

<일심으로 염승 정진 하던 날,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집 마당의 꽃향기가 코끝을 진동하고 비탈 한 점에도 깊이 감사의 마음이 솟더라는 절승을 훨씬 넘긴 보살님께서 그 날의 감동을 손수 적으신 글귀입니다.>

#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봄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봄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어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봄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승우섭 보살 사내)  
홈페이지: bomstudio.com



진언행자 가족을 찾아서 | 포항 수인사 권오남 고도

# “직심(直心)으로 정성 쏟으면 못 이룰게 없지요”

**명** 훈가피(冥熏加被)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의 덕과 가피가 알 듯 모를 듯 은은하고 그윽하게 내리쬐어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명훈가피의 덕을 고스란히 받으며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될지.

### 부처님 가피 충만한 삶

권오남(법명: 길수인, 74. 신정회 대구경북 지회장) 보살. 슬하에 3남 3녀를 두고 부부가 해로해 오던 전에 금혼식을 올렸다. 재물복도 있어 포항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중 하나라고 한다. 평생 크게 고난 겪은 바도 없고, 이만하면 부처님 가피가 충만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권오남 보살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서원당에 앉아 있다. 누구보다도 먼저 초를 켜고 향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한다. 이렇게 푸른 새벽부터 시방에 상주하는 부처님 가피력을 받을 준비를 잘 하고 하루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보면 권 보살이 가피를 일구어 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오남 보살은 경북 안강의 안동 권씨 집성촌에서 나고 자라 열 아홉 되던 해 각자님(최홍수, 78)과 혼인했다. 예법을 중시하던 가풍 탓에 집안에서 정해진 대로 시집을 갔지만 빈한한 살림에 초년 고생을 했다. 다행히 각자님의 성품이 온후하고 자상해 화목하게 살 수 있었고 덕분에 가세는 금방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재래식 시장으로 사양길로

접어든 분위기지만 한 오륙십년 전 포항 죽도시장은 전국의 웅만한 거간꾼들이라면 모두 집합하는 시장이었다. 거기서 큰 돈을 벌었다. 각자님은 해산물 가공공장을 차려 일본 등지로 수출도 했다. 몸도 건강하고 사랑스런 아이들이 자라고 더 바랄 것 없는 날들이 지나갔다.

호사다마(好事多魔)였는지 넷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별 이유없이 몸에 이상이 왔다. 급기야는 숨이 차서 대역서 걸음도 못 걸을 지경이 됐고, 우울증까지 생겼다. 치병을 위해 사방팔방을 다녀 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60년대는 포항에도 도심포교당이 생

는 걸 절감합니다. 육자진언이 기도 공덕과 성취가 참 빠르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인 미묘하고 밝고 큰 말씀이라고 안합니까.”

그 이후 40여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다. 포항에도 총지종 서원당이 문을 열었다.

총기 원년에 포항선교부가 개설되고, 학교 부지를 매입해 수인사 사원이 창건됐다. 수인사는 전 종령 록정 대종사, 복지와, 원봉, 지선행 스승 등이 교화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학생회 법회가 대외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등 교도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한 사원이었다.

알아야 세상을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자신을 잘 타이르고 위로하며 세상살이를 하라는 말일 게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되면 참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안인 바라밀(安忍 波羅密)이 되는 것이고, 수인사(修忍寺)의 사명(寺名)도 안인바라밀을 잘 수행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인지 수인사 주교 지공 스승님도 평소 육바라밀 중 '인욕(忍辱)과 보시(布施)'를 강조한다고 한다.

권 오남 보살은 우리 스승님이 부임 삼년 만에 대 전당을 건립할 만큼 열정적이고 설법도 제일간다고 자랑이

## 남은 바람은 열반(涅槃) 잘 하는 것 “아들과 교도들로 복적이는 사원되길”

기면서 대중불교 운동이 막 일어날 무렵이었다. 권 오남 보살도 여성불교회 관서 법문도 많이 듣고 절에도 여러 곳 찾아 다녔다. 그러나 병에 차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외사촌 시누이의 권고로 당시 진각종 심인당을 찾아 진언수행을 해나갔다. 몸이 차츰 나아졌다. 삼년 정도가 지나니 병증은 씻은 듯 없어졌고, 그 뒤 두 아이를 더 가질 수 있었다.

“살아 갈수록 이 법이 참 좋구나 하

“직심(直心)으로 하면 다 성취됩니다. 본체가 바르면 그 그림자도 바르듯이 무슨 일든 바르고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면 못 이룰게 없지요”

권 오남 보살이 수인사 사력 얘기를 하던 중 복지와 스승님 말을 하며 눈물바람이다. 그만큼 감사함이 사무친 것이리라.

수인사는 지난 해 연건평 380평 지상 4층의 종단에서 가장 미려한 전통 한옥양식 사찰을 건립했다. 물론 중창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찰 회장직을 수행한 권 보살의 역할이 컸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저는 스승님 복도 참 많습니다. 종단의 큰 스승님들이 두루 거쳐 가셨기에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지공 정사님과 지희심 전수님같은 열정적인 스승님을 보내 주셔서 이 좋은 전당을 만들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습니다.”

### 안인바라밀 닦는 절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감인토(堪忍土)라 했다. ‘견디고 참아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다. 감(堪)·인(忍)·대(待), ‘견디고 참고 기다릴 줄

대단하다.

“훌륭한 스승님 말씀이 입시에 치이고 감정이 메말라 가는 젊은 아들에게도 전해지고 많은 교도들도 제도 해탈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행처가 다시 창건 초기 때처럼 아이들과 보살님, 각자님들로 복적이길 기원해 봅니다.”

### 정진의 고삐 늦추지 않고

권 오남 보살은 젊을 적엔 밤늦도록 시장에서 일을 하고 녹초가 돼서도 꼭 서원당에 갈 정도로 정진력이 대단했다. 그때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한 가지 바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은혜로 20여명의 식구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 왔습니다. 더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다만 열반(涅槃) 잘 하고 싶습니다.”

모든 바람을 이루고 자기 집에서 일생을 편안히 마치는 고종명(考終命)과 불교의 열반은 다르다. 열반은 그저 편안히 돌아가는 것만이 아닌 ‘모든 번뇌의 불이 다 소멸된 무여적정(無餘寂靜)한 자리로 돌아감’을 말한다. 부처님도 생노병사 사고(四苦)에서 벗어



나고자 출가를 감행하지 않았던가. 그런 면에서 어쩌면 권 보살의 남은 바람은 제일 큰 바람일 수도 있다.

생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과 스승님의 말씀을 지피 삼아 오로지 인욕 정진하겠다는 권 오남 보살같은 그 제일 큰 바람도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처님 ‘명훈가피력’으로

윤우채 기자

###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2003년 금혼식 잔치에서.

#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축제

##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나투심을 기리는 연등축제!!



나와 부처, 중생이 하나되는 어울림마당.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에 여러 불자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어울림 한마당 연등축제  
일시 : 4월 27일 오후 3시  
장소 : 잠실 펜싱경기장

